

12. 2월 + 0
2월 + 0
2월 + 0
2월 + 0
2월 + 0



백시내

이달의 표지 작가



표지 작품

〈Hermann Hesse, Butterfly〉

Silver, Enamel, Gold Leaf, Porcelain

50×62×10mm | 2019



백시내는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금속·주얼리디자인 석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2020년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아케이드 11기 입주작가로 선정됐다. 2020년 2월부터는 Sinae Jewelry Studio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제19회 국제주얼리디자인공모전에서 베스트굿즈상, 같은 해 국제 주얼리 전시 〈Collectiva Joalharía de Autor〉의 'AUTOR Media Award'를 수상했다. 〈Collectiva Meeting International Jewellery Exhibition〉(2019)에 참여했으며, 개인전 〈Daily Life SINAЕ×Common〉(2019)을 열었다.

‘불의 예술’이라고도 하는 ‘칠보’는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얼리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금속이 가진 색의 한계점을 보완해 주고, 유리보다 더 깊은 색을 갖고 있는 칠보는 나의 작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이 칠보는 단순히 ‘전통적인 장신구에 있는 것’ ‘오래돼 보이고, 고루한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던 중 유선칠보(금속선으로 칠보 유약색을 내는 것)가 가장 화려하게 꽃피운 비잔틴 시대의 작품을 보게 됐다. 당시 사람들의 일상을 규율하는 기독교 교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유선칠보 장신구는 사람들에게 이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유선칠보 기법에서 금속선은 단순히 색을 나누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 일상을, 그리고 감정을 담아내는 선이 됐으면 한다. 유선칠보라는 전통 기법에 현대적인 해석을 더해 대중에게 친숙함을 전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장신구 속 소소한 일상의 풍경을 감상하는 동안 바쁜 현대 사회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자신의 일상을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길 기대한다.

〈Hermann Hesse, Butterfly〉 〈Spring Breeze〉 〈Night Butterfly〉는 봄을 배경으로 작업했다. 따스한 봄날, 푸른 하늘, 한가로운 주말 오후, 싱송송한 봄 기운, 마음 한 편에 갑자기 들어온 봄바람, 봄과 함께 느끼는 우리 일상의 분위기다. 저마다 봄을 느끼는 정도는 달라도 ‘봄’ 자체로 우리의 일상은 왠지 설레고 오묘해지는 기분이 든다. 올해, 온전히 그러한 기분이 드는 봄이어서 다가오길 바라본다.



〈Night Butterfly〉
Silver, Enamel, Gold Leaf | 40×60×8mm | 2019



〈Spring Breeze〉
Silver, Enamel, Gold Leaf | 55×60×10mm | 2019



〈사람, 생각중 (1)〉
Silver, Enamel, Rose quartz | 72×82×9mm | 2020

CONTENTS

2020 04 VOL. 158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김종휘
편집 총괄 이규승
기획·편집 전주호, 오니트(주)
객원 편집위원 김태희
사진·디자인 (재)서울문화재단, 오니트(주)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66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웹진 www.sfac.or.kr/magazine
발행일 2020년 3월 31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01 커버스토리

이달의 표지 작가 백시내

테마 토크

재난의 시대와 예술

06 칼럼

소설 《페스트》에서 찾아본 삶의 자세

08 리포트

재난과 예술 작품

14 인터뷰

온라인 공연 여는 뮤지션 강백수

사람과 사람

18 문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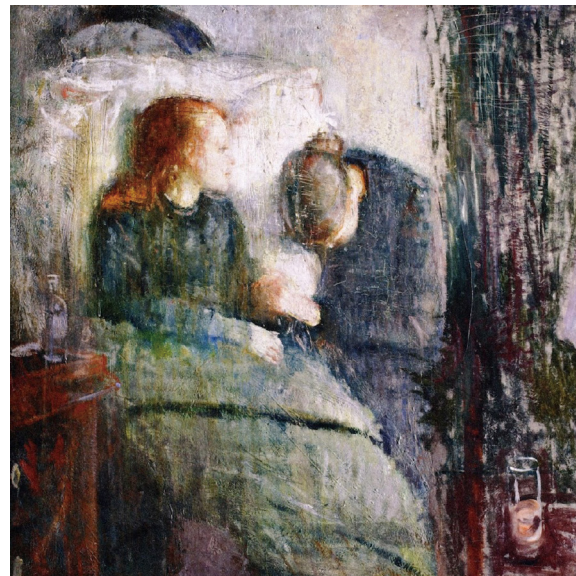
영화감독 이승준

24 작가의 방

강은일 해금 연주자·한태숙 연출가

배삼식 극작가·김서령 소설가

주철환 프로듀서·조숙현 큐레이터 겸 미술비평가



이슈 & 토픽

32 쟁점

재난의 위기 속 문화예술 길 찾기

34 화제

마음약방 5년을 마무리하며

공간, 공감

38 공간

서울웨이브 아트센터

40 공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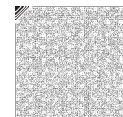
무용 〈검찰관〉과 〈4&9〉

42 공감 2

전시 〈새일꾼 1948-2020: 여러분의 대표를 뽑아 국회로 보내시오〉와
〈류인-파란에서 부활로!〉

44 공감 3

책 《죽는 것보다 늙는 게 걱정인》과
《시의 나라에는 매혹의 불꽃들이 산다》



46 이경자의 서울 반세기, 공간을 더듬다¹⁷

기억은 골목길을 떠나 나이트에 스몄다

48 정지우의 썰(說)

재난의 시기 동안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것들에 대하여

50 서울 건축 읽기

내게로 오는 공원 ❶ 통의동 마을마당

52 최재훈의 씨니컬(Cine_Col: Cinema Column)

장국영 추모 에세이

WEBZINE+

56 웹진 [비유]

죽음에 대한 생각

58 웹진 [연극in]

〈판소리 햄릿-송보라 편〉

60 웹진 [춤:in]

국은미

62 4월의 서울문화매뉴얼

68 편집 후기



살풍경 속에서 예술이 말하는 것

재난의 시대와 예술

코로나19로 세상은 유례없는 긴장감과 공포에 얼어붙은 듯하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새 봄이 성큼 와 있다. 4월호 테마토크에서는 전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놓여 있던 시기의 예술 작품을 통해 지금 우리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어쩌면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예술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반영하고 상상했을까. 또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여러 분야의 시대적 풍경에서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힌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속수무책의 상황에서 기꺼이 충실하기

소설 《페스트》에서 찾아본 삶의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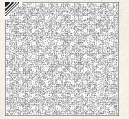
평범하고 조용한 해안 도시 오랑에 페스트가 돌면서 도시가 봉쇄된다. 오랑시의 사람들은 각각의 방법으로 가까워 오는 죽음의 공포에 마주한다. 출간된 지 70년이 지난 카뮈의 소설 《페스트》의 내용 중 일부이다. 잔혹한 현실과 죽음 앞의 다양한 인간 군상을 그려내고 있는 《페스트》에서 카뮈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듯하다. 의연히 주어진 운명 앞에 책무를 다하며 살고 있는가 하고 말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벌써 한 달 넘게 깊은 혼란과 우려에 시달리고 있다. 확진자가 두 배씩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 중순부터였다. 급기야 모든 학교의 3월 개학도 2주간 미뤄지게 됐고, 그사이에 다시 4월로 더 미뤄졌다.

이번 칼럼의 주제는 '전염병 같은 재난 상황에서 문화예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다. 나는 조금 구태의연하지만 상식적인 사항을 두

가지 적으려 한다. 첫째는 냉정하고도 과학적인 현실 대처이고, 둘째는 자기 직분에서의 성실성이다. 이것은 카뮈(A. Camus)의 소설 《페스트》(1947)에서 알려주는 통찰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는 각 나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당할 정도로 알려지고 또 알게 되는 전지구적 초연결망 시대에 살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크게 보면, 오늘날 편제



하는 이주 상황이 초래한 불가피한 결과의 하나다. 이제 어느 대륙 어느 나라에 있어도 우리 각자는 그 나라 그 지역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밖의 사람들에 노출돼 있고, 이 사람들의 문화와 알게 모르게 이어져 있다. 그러면서 전에 없던 사건 사고도 발생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의 대처 방안은 전체적으로 훌륭해 보인다. 하지만 이런 자부에 안주하기보다는 현실의 미비점들—아직 외국 언론에 지적되지 못했지만 우리 스스로는 잘 의식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이를테면 개인 수칙의 준수나 집단적 예배강행에 일부 나타난 무지하고 무책임한 일—을 하나씩 줄여가야 할 것이다. 개인·사회적 합리성의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일로 무급휴가에 사적까지 강요받는 일터도 있다지 않은가? 불안에 따른 혐오증이나 적대 의식도 그런 어두운 면모다. 사실 예술이 보여주는 것도 이런 드러나지 않은 현실의 배후다.

전염병 같은 재앙이나 위기는 현실에서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인간은 역병의 소용돌이 속에서 혼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적 현실과 싸우는 가운데 상황을 조금씩 타개해 나간다. 그러면서 때로는 피해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인간은 늘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것이다.

자기 직분의 충실성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인간은, 의사 리유가 보여주듯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 누가 보든 보지 않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언제 끝날지 모르

지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 그것만이 속수무책의 위기 상황에서 진실한 태도인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자(聖者)나 승리자에게서가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그 나름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그것이 때로는 패배할지라도, 깊은 공감을 느낀다. 싸우는 인간의 진실한 양심은 남을 만한 것이다.

코로나 사태는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재난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대응에서 우리가 무엇을 잊고 있는지, 이런저런 노력에도 여전히 미비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한다. 외신 보도와 무관하게 우리의 대응에서 부족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문화는 훌륭하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한 병원이 개발한 ‘1인 감염안전진료부스’도 그렇다.

그 출발이 될 만한 가치는 무엇일까? 아마도 투명성일 것이다. 합리성이 사회·정치적 투명성을 지칭한다면, 투명성의 개인적 이름은 정직성이 될 것이다. 사회제도적 합리성과 개인적 정직성이 결합된 사회야말로 좋은 사회의 조건이다. 그리고 그 결합은 카뮈가 알려주듯이 무슨 사명감이나 포부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어떤 다른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거둬되지 않게 해나가는 데, 아니 해나가려고 애쓰는 데서 이뤄진다. 시끌벅적한 영웅이 아니라 직무에서의 자기정실성을 조용히 보여주는 사람이야말로 이미 영웅적 실천을 하는 것이다.

글 문광훈_충북대학교 교수

어두운 현실 속 예술작품에 말 걸기

재난과 예술 작품

예술 작품은 작가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간 시대 또한 반영한다.
번영과 평화 외에도 그 이면과 어둠까지 담기에 예술은 의미 있다.
재난의 시대에 탄생한 음악에는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지,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기를 살아낸 화가들의 작품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문학과 영화는 재난의 상황을 어떻게 담아내고 상상하는지 차례로 살펴본다.

재난의 시대 속 음악

시대의 묘사부터 위로까지

13세기 이탈리아의 수도사였던 ‘첼라노 사람 토마소(Tommaso da Celano)’는 이후 유럽의 수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줄 명상시를 적었다. “분노의 날, 그날이 오면 세상 만물이 재로 화하리라. 다윗과 시빌라가 예언했듯이.”

이 시는 전 유럽의 수도사들이 부르는 성가가 됐다. 장송 미사곡 즉 <레퀴엠>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디에스 이레(Dies Irae·분노의 날)’다. 모차르트를 비롯한 수많은 작곡가가 이 시에 선율을 붙였다. 우리나라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위기에 닥칠 때마다 황황거

리는 광포한 합주와 함께 등장하는 무시무시한 합창이 이탈리아 오페라를 대표하는 작곡가 베르디의 레퀴엠에 나오는 <디에스 이레>다.

이 시는 레퀴엠에 등장하는 다른 성가인 <리베라 메(Libera me·나를 구해주소서)>에도 영향을 주었다. 여기에는 ‘분노의 날, 재앙(calamitatis)과 고통(miserie)’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인류가 상상해 온 재앙은 어떤 것들이었을까. 성경 출애굽기는 ‘피로 변한 강물, 개구리·이·파리·메뚜기의 창궐, 가축과 사람의 전염병, 우박, 세상이 어두워짐, 짐집마다 만아들의 죽음’을 언급한다. 지진, 홍수, 대화재, 폭풍과 회오리바람도 늘 인간을 위협하고 괴롭혔다.

그러나 다행이라고 할까, 예술적 영감을 위해서는 불운한 일일까. 클래식 음악의 시대는 상대적으로 인류가 대부분의 재앙을 회피한 시대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초기 바로크와 르네상스 음악의 수요가 늘었지만, 클래식 팬이 즐겨 듣는 음악은 지금도 대부분 18세기 중반, 비발디·바흐·헨델의 전성기부터 170년 남짓한 시기 동안 나온 음악들로 묶여 있다.



작곡가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흑사병과 아우구스틴의 노래

북부 독일 출신인 바흐와 헨델이 태어나기 6년 전인 1679년, 신성로마제국의 남동쪽 끝인 빈을 흑사병이 휩쓸었다. 이 도시에서만 7만 6,000명이 죽은 걸로 추산된다.

이 도시에는 백파이프를 연주하는 길거리 음악가 아우구스틴이 살았다. 하루는 흑사병이 덮친 도시를 아우구스틴이 걷다가 도랑에 빠졌다. 그는 그대로 잠들었다. 날이 새고 그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를 시체인 줄 알고 흑사병으로 죽은 시신더미에 던졌다. 눈을 뜬 아우구스틴은 시체더미 속에서 움직일 수 없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오, 사랑하는 아우구스틴, 아우구스틴, 아우구스틴/ 모든 것이 끝장났네!/ 돈도, 사랑도, 모두 끝장났네/ 부자 동네 빈에서, 나날이 축제였지/ 이제는 전염병뿐이로구나. 시신들의 축제뿐이지/ 오, 사랑하는 아우구스틴, 모든 것이 끝장났네!” 사람들은 그를 시체더미 속에서 꺼내주었다.

이 노래의 선율은 윤석중 선생이 가사를 붙인 〈동무들아〉라는 노래

의 가사로 우리에게 친숙하다. 죽음의 그림자라고는 없는 이 천진한 멜로디는 100년 뒤 빈에서 베토벤과 나란히 활동한 작곡가 요한 네포무크 후멜이 더없이 화사한 변주곡으로 만들었다. 유튜브에서 ‘Hummel Augustin’으로 검색하면 들어볼 수 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묘하게도 한 세기 더 지난 뒤 빈 궁정오페라 감독으로 활동한 작곡가 말리의 교향곡 5번 3악장이 떠오른다. 표현주의적인 절규의 1·2악장과, 사랑 노래에서 자연의 찬미로 이어지는 4·5악장 사이에 낀 아리송한 춤곡 악장이다. 중간부 홀츠클라퍼(나무 딱딱이)의 독특한 음향에서는 마른 뼈들이 부딪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차이콥스키와 비창 그리고 콜레라

그러나 ‘제양’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악은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창〉(1893)이다. 차이콥스키는 이 곡이 초연되고 1주일 남짓 지난 뒤 당시 러시아에 만연했던 콜레라로 세상을 떠났다. 혹자는 그가 비소를 마시고 자살한 뒤 비소 중독과 비슷한 콜레라로 위장했다고 분석하지만, 진실은 알 수 없다.

1악장. 주요 선율이 등장한 뒤 청천벽력과도 같은 팡 소리와 함께 모든 악기의 광포한 질주가 시작된다. 흡사 하늘을 검게 가리고 모든 것을 잡아버리는 메뚜기 떼일까. 모든 것을 떠내려 보내는 쓰나미와 같이 금관의 난폭한 포효가 찾아지면 슬프고도 서러운 현악의 주제가 회상된다. 목놓아 우는 것도 같고, 한 줄기 위안을 찾은 것 같기도 하다.

이제 위안을 찾아보자. 유럽을 뒤흔든 흑사병의 잿더미 위에서 유년기를 보낸 안토니오 비발디의 성가는 어떨까. 작곡가로서 비발디의 존재도 얼마간 사소한 재난 위에 탄생했다. 그가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 지진이 베니스를 뒤흔들었다. 놀란 어머니는 “이 아이를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기도했다. 아이는 약속대로 사제의 길을 걸었고, 성당에서 고아 음악가들을 가르치는 ‘음악 신부’가 됐다.

음악영화 〈샤인〉에 삽입된 비발디의 성가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Nulla in mondo pax sincera)〉를 소프라노 에마 커크비의 청아한 목소리로 듣는다. “비참함으로부터의 자유 없이,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없구나. 세상은 겉으로는 화려하나 감춰진 상처로 찢어가는구나. 정벌과 고통 가운데도 평안한 영혼은 순결한 사랑을 회구하며 살아 가노라.”

글 유윤종·동아일보 기자

지독한 현실을 반영한 미술

스페인독감이 캔버스에 남긴 것

아내와 배 속의 아이,

그리고 에곤 실레의 목숨까지 앗아갔던 스페인독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젊은 남자가 벌거벗은 채로 침대에 앉아 있다. 평소 그림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단박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챌 것이다. 남자는 이 그림을 그린 에곤 실레(Egon Schiele, 1890~1918)다. 남자 앞쪽에는 역시 벌거벗은 채 웅크려 앉아 한 곳을 멍하니 바라보는 여인이 있다. 여인의 다리 사이에는 귀여운 얼굴의 아기가 밝은색 이불로 몸을 감싼 채 앉아 있다.



1915년 에곤 실레는 에디트 하름스(Edith Harms)와 결혼한다. 에곤 실레는 결혼 후 각종 전시회에서 성공을 거두며, 본격적인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며 작가로서 명성과 부를 얻게 된다. 그러나 그에게 일에서의 성공보다 더 기쁜 소식은 아내 에디트가 임신했다는 사실이다. 실레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조카를 모텔 삼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얼굴을 그려 작품 〈가족〉을 완성한다.

실레의 작품 중에서 온전한 가족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은 이 그림이 유일하다. 그만큼 실레에게 가족이 주는 의미는 컸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유럽에 창궐한 무시무시한 위력의 스페인독감에 아내 에디트가 감염되면서, 실레는 아내와 배 속의 아이까지 함께 잃고 만다. 그리고 아내를 지극히 간호하던 실레 또한 아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한다. 그가 그린 〈가족〉의 모습은 끝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

평소 건강하던 실레와 그의 아내는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 다른 감기 바이러스가 어린아이나 노약자처럼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에게 주로 전염되는 데 비해, 스페인독감은 특이하게도 20~30대 전반의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가장 맹위를 떨쳤다.

‘스페인독감(Spanish influenza)’은 1918년 3월부터 1920년 6월까지 제1차 세계대전(1914~1918)과 맞물려 대유행한 바이러스 질환이다. 유럽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사망한 사람이 1,500만 명 정도였다. 그런데 스페인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은 2,100만 명에서 5,000만 명, 많게는 1억 명으로 추정된다.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약 6억 명의 사람이 스페인독감에 걸렸다. 인류 역사를 뒤흔든 무시무시한 전염병이었다.

스페인독감은 인류를 통째로 집어삼킬 듯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우리나라에서 ‘무오년 독감’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스페인독감이다. 1918년 조선 사람 742만여 명(당시 조선 총 인구 1,670만여 명)이 스페인독감에 걸렸고, 이 중 14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염병으로 흥흥해진 민심은 이듬해인 1919년 3·1운동을 발발하게 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1 에곤 실레의 〈가족〉, 1918년 작. 오스트리아미술관 소장

2 에드바르 뭉크의 〈병든 아이〉, 1896년 작. 오슬로 국립미술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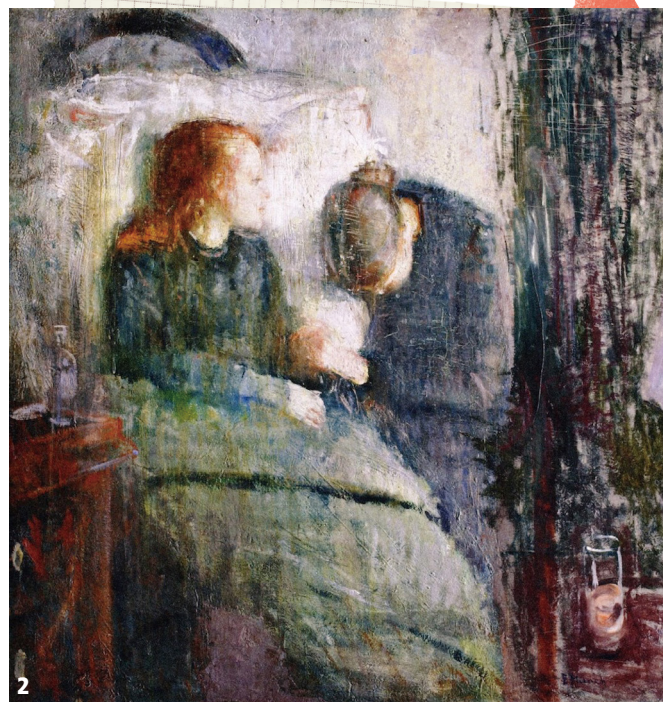
불행한 가족사와 스페인독감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지를 지킨 몽크

녹색 정장을 한 노년의 남자가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다. 노인은 초췌해 보이고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많이 힘들어 보인다. 몽크의 작품 〈스페인독감을 앓은 후의 자화상〉. 이 작품은 제목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 중 하나인 스페인독감에서 회복한 후 에드바르 몽크(Edvard Munch, 1863~1944)가 그린 자신의 모습이다. 그림을 그릴 당시에 그는 50대 중반이었지만 병마와 처절한 사투를 벌인 몽크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대단했는지 자화상으로 남겨두었다. 후에 이 그림은 의사들이 보는 감염학 교과서 표지에 실리기도 했으니 몽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꽤 흐뭇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몽크는 노르웨이 출신의 표현주의 화가이자 판화가이고,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과 질병을 표현했다. 노르웨이의 신화와 전설을 보면 유난히 음침하고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피오르(fjord·빙하가 깎아 만든 U자형 골짜기에 바닷물이 유입돼 형성된 좁고 기다란 만)와 빙하에 둘러싸여 있었고, 오로라가 밤도 낮도 아닌 북구의 하늘에 빛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곳. 노르웨이는 그런 곳이다.

몽크의 할아버지는 고위 성직자였고, 아버지 크리스티앙 몽크는 군의관이었으며 나중에는 오슬로 근교 빈민가에서 의사로 활동했다. 몽크는 다섯 남매 가운데 둘째로 태어났다. 몽크 역시 어릴 때부터 병약했고 감기를 늘상 달고 살았다. 어머니는 몽크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인 다섯 살에 당시 만연한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로 인해 아버지는 우울증으로 종교에 집착하는 증상을 보였다.

그런 집안을 돌본 것은 누나 소피에와 이모였다. 하지만 누나 역시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폐결핵으로 몽크가 열다섯 살이 됐을 때 사망했고, 1895년 남동생 안드레아스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급성폐렴으로 사망한다. 이어 1898년에는 여동생 라우라가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 몽크는 “우리 가족에게는 병과 죽음밖에 없네. 그게 우리 핏속에 있어.”라는 자조적인 말로 푸념했다고 한다.

이런 몽크의 가족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1896년 작 〈병든 아이〉다. 아픈 아이와 그를 간병하고 있는 슬픔에 젖은 어머니를 그린 그림이다. 간병하는 어머니가 울고 있는 것인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몽크 특유의 우울하고 어두운 주제의 그림이다.



이 그림은 어린 시절 자신을 돌보던 누나 소피에를 떠올리며 그린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 당시 몽크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림 속 간병인은 몽크의 형제들을 돌보던 이모 카렌일 것이다.

몽크는 이런 불행한 가족사에도 끝까지 살아남아 그림을 그렸다. 평생을 괴롭히던 천식도 이겨냈다. 알코올 중독과 신경 쇠약에 의한 정신분열증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9개월 동안 입원한 후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림을 그렸다.

1918년에 전 세계를 휩쓸고 술한 사망자를 냈던 스페인독감까지 병약한 몽크를 공격했지만 그는 스페인독감도 끝내 이겨냈다. 많은 사람들이 몽크의 작품 전반에 흐르는 우울하고 불안한 정서 때문에 그가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처럼 젊은 나이에 자살로 생을 마감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했다. 하지만 몽크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고 여든 살 넘게 살았고, 그림을 그리고 또 그렸다.

글 박광혁_내과 전문의, 《미술관에 간 의학자》 저자



소설과 영화가 재난을 다루는 방법

우리가 찾는 것은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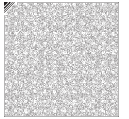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을 했다. 코로나19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유럽과 미국, 남미 등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국경 봉쇄만이 아니라 도시와 지역 간의 이동을 막고 식당과 극장 등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임시 폐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모든 병원을 임시 국유화한다고 선언했다.

2001년 9·11 테러로 시작된 21세기는 사스, 신종 플루, 메르스, 코로나 등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또 다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0세기 최대의 공포가 핵전쟁이라면 지금 공포의 대상은 바이러스 아닐까. 하나의 세계는 커녕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당장의 생존에만 매달리는 아포칼립스의 새벽 같은 느낌이다.

한데 바이러스의 공포로 텅 빈 거리나 마스크를 쓴 수많은 사람이 이런 풍경은 낯설지 않다. 이미 소설과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에서 예견한 모습이다. 그 작품들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보여주었다. 당시에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래였지만 그들은 과거 혹은 당대를 통해 재난이 닥친 미래를 상상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인간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던 알베르 카뮈

흑사병의 공포가 유럽을 휩쓸었고, 두 번의 세계대전이 많은 것을 파괴했다. 도시와 자연 그리고 인간성까지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 영화 <컨테이션>의 한 장면
2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
(사진 제공 더스토리)

후 알베르 카뮈는 1947년 소설 《페스트》를 발표했다. 《페스트》는 전쟁 와중에 쓰기 시작했으며 전염병이 휩쓰는 프랑스의 오랑시가 배경이다. 페스트가 기승을 부리자 오랑시는 봉쇄된다. 그리고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격리된다.

치명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제각각의 반응을 보인다. 기자인 랑베르는 참극의 현장과 거리를 둔다. 자신은 오랑시의 일원도 아니고, 당사자가 아니라면서 슬쩍 발을 빼려 한다. 파를루 신부는 신의 구원에 호소한다. 하지만 신이 전염병을 준 것도 아니고, 사라지게 하지도 않는다. 결국 병을 막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노력이다. 외부자인 타루는 의사인 리유와 함께 사람들을 조직하고, 페스트에 맞서 싸운다.

알베르 카뮈는 부조리한 세상에 반항해야 한다고 주장한 작가다. 《페스트》에서도 “이미 창조되어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거부하며 투쟁함으로써 진리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한다. 누군가는 도망치고, 누군가는 신에 의지하지만, 누군가는 싸운다.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면 사람들의 저열한 본성이 나온다. 그러나 카뮈는 인간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다. “인간들 속에는 경멸할 것보다 찬탄할 것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인간은 어떻게 행동할까?

바이러스가 퍼지는 상황을 리얼하게 그린 영화로는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컨테이션>(2010)이 있다. 홍콩에 출장을 다녀온 베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죽는다. 세계 곳곳에서 베스와 동일한 증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 <컨테이션>에 나오는 바이러스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작으로 추정되는 것처럼 박쥐가 근원이다. 박쥐의 변을 먹고 자란 돼지를 요리한 세프가 최초의 바이러스 감염자였다. 그가 접촉했던 것을 만진 사람들이 전염되고 일파만파 퍼져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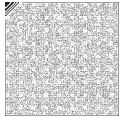
신종 바이러스의 시작은 원숭이·낙타·닭·박쥐 등 동물이 대부분이었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면서 남극이나 히말라야의 얼음 아래 잠자고 있던 고대 바이러스가 깨어날 것이라는 보고도 있었다. <컨테이션>을 보면 전염병이 퍼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지금 강조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왜 필요한지도. <트래픽> <헤이와이어> 등 사실적인 스타일의 영화를 잘 만들었던 스티븐 소더버그는 <컨테이션>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마치 보고서처럼 생생하게 그려낸다.

<컨테이션>이 리얼한 바이러스 보고서라면 <퍼펙트 센스>(2011)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한다. <퍼펙트 센스>에 나오는 바이러스는 인간의 오감을 파괴한다. 후각·미각·청각·시각 순으로 감각이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음식을 만들어내는 요리는 감각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요리를 만들어줄지 고민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과 어떻게 교감하고 하나가 돼야 하는지 고민한다. 오감을 잃어가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성을 점점 좁혀가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된다. 하나의 생각만 옳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최고라고 강변하는 사람들. 지금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의 감각을 풍성하게 하며 다양한 생각을 시도하는 것이 아닐까.

거대한 재난이 닥치면 일상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생존밖에 생각할 수 없게 된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코맥 매카시의 소설 <더 로드>(2006)는 문명이 괴멸한 후 살아남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다. 대재앙이 벌어진 후 세계는 아수라장이 됐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빈집과 상점을 뒤지거나 서로 죽이며 물건을 빼앗기도 한다. 원시 시대로 돌아간 것이다. 하지만 남자는 대재앙 이후 태어난 아들과 함께 끝없는 여정을 이어간다. 더 나은, 더 좋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선다. 암울하지만 결코 희망을 잃지 않는다. 어두운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미래를 보는 것, 희망을 찾는 것이 결국 재난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글 김봉석_대중문화평론가





예술가로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다음

온라인 공연 여는 뮤지션 강백수

강백수는 2010년 첫 EP 〈노래, 강을 건너다〉를 시작으로 10년 가까이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뮤지션이다. 솔직하고 위트 있는 노랫말과 이를 호소력 있게 전달하는 창법으로 자신의 음악 세계를 성실히 다져왔다. 그는 음악가이기에 앞서 2008년 등단한 시인이자 세 권의 에세이집을 낸 작가로 동시대 청년 세대의 '웃픈' 현실을 글로 전해왔다. 지난 3월 초, 그가 온라인 공연을 연다는 소식을 접했다.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한 곡씩 싱글 음원을 발표할 계획으로 활동을 박차를 가한 상황에서, 그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일정이 취소되는 등 직접적인 여파를 입었을 터였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타이틀의 온라인 공연은 당초 예정했던 3월 15일에서 일정이 조금 더 미뤄졌지만, 모금 계좌를 열고 관객으로부터 자발적인 공연비를 받아 그 수익을 전액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부하는 등 다른 계획은 변함이 없었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예술가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뮤지션 강백수로부터 들어보았다.

Q 전반적으로 공연이나 행사가 많이 취소되는 분위기다. 많이 힘들 것으로 짐작하는데 예술인으로서 체감하는 현 상황은 어떤가.

A 사태가 심각하다. 내 경우 하루에만 일정 열여섯 개가 취소된 적도 있다. 요즘 업무 전화의 내용이 대부분 그런 것이어서 나중에는 전화를 받기가 두려워졌다.(웃음)

Q 올해 한 달에 한 곡씩 싱글 음원을 발표하기로 하고 활동 중인데 차질이 클 것 같다. 뮤지션은 신보를 발표하면 공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깥 활동을 사실상 거의 못 하게 된 것이 아닌가.

A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아무래도 5월까지의 여파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통 우리 같은 뮤지션 입장에서는 한 해 동안 활동이 가장 많은 봄·가을 대목 중 하나를 잃은 것이니 1년 수익의 반을 잃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물론 뮤지션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나처럼 오프라인 공연이 수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예술인의 경우는 타격이 더 클 것이다.

Q 그런 와중에 유튜브 라이브 공연 '할 수 있는 일'을 열기로 했다. 어떤 계기로 공연을 기획했나.

A 의무를 다하고 나서 권리를 주장하라고 하지 않나. 뮤지션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의무는 무엇일까 생각하게 됐다. 전반적으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환기하고 싶은데 오프라인 공연이 어려운 상황이고, 온라인으로는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나 볼 수 있되 원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계좌로 보낼 수 있게 입금 정보를 공개하고, 이렇게 거둔 수익은 전액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부한다. 보는 이들에게 기부를 독려하기보다는 내가 직접 기부하고 싶었다. 뮤지션으로서 음악을 해서 일종의 책무를 하고 싶었달까.

Q '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A 국가적인 재난 상황으로 인해 공연이나 행사가 취소됐을 때 그 피해를 주최측·대행사·아티스트가 각각 어느 정도로 부담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제도상의 보호책이 마련됐으면 한다. '출연료의

몇 퍼센트는 어느 쪽에서 보전한다'는 등의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체로 '을'인 아티스트 입장에서 모든 일에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후 섭외에서 배제될 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티스트는 공연이 취소됐을 때 결과적으로 계약금 전액에 대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입장이다. 공연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비워두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은 물론 공연을 준비할 때 드는 물리적인 비용이 있는데, 그런 게 인정되지 않으니까.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은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책임을 지거나 고통을 분담하는 비용이 제도적으로 정착돼, 지금과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아티스트로서 나의 일을 다하고 싶다는 의미다.

Q ■ 마음이 어려운 때 분위기를 환기하는 것, 그렇게 공연해서 거둔 수익을 기부하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위 '을'이 고통을 떠안는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메시지를 전하는 것 모두 이번 공연의 취지인 셈이다. 공연은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는데.

A ■ 처음 기획할 때는 평소에 하던 공연과 동일하게, 장소도 대관해서 하려고 했는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너무 침체돼서 그런지 호응도가 높지 않았다. 감사하게도 장소를 협찬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호응이 있어야 장소를 협찬해 주시는 분들의 매장 홍보 등에도 도움이 되는 터라, 예상과 달리 진행된 부분을 조정하기로 했다. 공연일을 조금 늦췄고, 규모를 축소해 유튜브 라이브처럼 진행할 예정이다.

Q ■ 2017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께 노래를 들려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음악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는 대목이 있었다. 4월이 다가오니 자연스럽게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게 되는데, 지금과는 성격이 많이 다른 사건이었지만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지금과 견주어 보지 않을 수 없다.

A ■ 이런 공연을 기획하고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계기로 늘 기억하게 되는 것이 세월호 참사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마치 사회가 예술인에게도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들었

던 마음은 '이럴 때일수록 예술이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였다. 적어도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 당시 공연을 많이 자제하는 분위기였지만, 나는 공연이나 음악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공연을 하러 갔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하곤 한다.

Q ■ 동료들과도 이런 얘기를 종종 하나.

A ■ 세월호 때엔 그런 얘길 많이 했다. 당시엔 나도 뮤지션으로서 처음 겪는 일이었기에, 국가적인 애도 분위기에 동참해서 이런 때엔 조용히 있는 게 옳은 일일까, 아니면 공장이 돌아가고 버스나 지하철이 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걸까 동료들과 이야기 나누곤 했다.

Q ■ 세월호 참사 당시 예술가들 사이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번 공연 제목이 더 와닿았다.

A ■ 예술가들이 해낸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위낙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당시에 국민을 위로하는 건 선부르고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참사에 대해 기록을 남기는 데엔 예술인들이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뭘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게 된다.

Q ■ 공연을 준비하며 평소 공연과 다르게 목차(세트 리스트)를 짠다는 등 특별히 준비하는 게 있을까.

A ■ 일단 무조건 '신나게!' 하려고 한다. 모두들 침울해 있지 않나. 나는 사람이 사는 데 세 종류의 친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고민이 있을 때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친구, 또 하나는 '나도 그런 고민이 있어'라고 공감하는 친구, 그리고 '에이, 그냥 술이나 마시자!' 하고 고민을 잊게 만드는 친구다. 그중 솔루션을 제시하는 건 예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공감하는 행위는 예술의 방법으로 그것을 기록하거나 애도하는 것으로 가능할 것이다.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인 '에이 술이나 마시자!'다.(웃음) 공연을 통해 일단 긴장을 풀고 힘을 내자고 이야기할 생각이다.



Q 글 쓰는 일을 겸하고 있다. 올해 시집도 출간될 예정이라고.

A 책은 7월에 나올 예정이다. 올해 매월 발매되는 싱글도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이고 시집도 그간 틈틈이 써둔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작년에 일을 열심히 했다. 그렇게 해서 올해 활동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웃음)

Q 재난에 처했을 때의 인간을 다룬 《페스트》나 《눈먼 자들의 도시》 같은 작품이 요즘 많이 읽힌다. 요즘 꺼내볼 만한 책이나 음악으로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A 아무래도 세월호를 계기로 만들어진 작품을 찾아보게 된다. 그때 묻어놓은 타임캡슐을 꺼내볼 만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다. 음악 중엔 여러 아티스트가 함께 작업한 컴필레이션 앨범 <다시, 봄> 프로젝트를 추천한다. 2015년 봄에 2014년 봄을 생각하며 만든 음반이다. 최근에 다시 들었는데, 비슷한 상황에서의 ‘예술가의 일’에 대해 참고할 만한 게 있다고 느꼈다. 그때 전반적인 분위기는 슬픔이었고 지금은 ‘공포’에 가깝지만 충격에 의한 패닉은 유사한 것 같다. 언론은 계속 자극적인 보도만 하고 싶어 한다. 어떻게 책임지고 대처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데, 어떻게 하면 공포와 충격을 증폭시킬지 혈안이 돼 있다는 느낌이 든다.

Q 그래도 SNS를 보면 기분 좋게 이 상황을 극복하려는 느낌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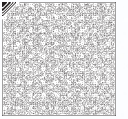
A 의도적으로 공포를 보태고 싶지 않다. ‘무섭지 않은 척’ 하는 것 인지도 모르지만. 무서워하지 않는 대신 이 상황을 타개할 합리적인 제안이 있다면 협조할 수 있다.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느 시점까지는 공연을 멈춰달라, 그동안 우리는 해결책을 마련해 보겠다’라든지 ‘그 기한 안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 우리가 이 정도는 보상할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대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무턱 대고 ‘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라고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조금 답답하다.

Q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궁금하다.

A 올해 12월까지 한 달에 한 곡씩 발매를 이어갈 예정이고, 7월에는 시집이 나온다. 그때쯤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좋을 텐데… 책이 나오면 북 콘서트를 정말 하고 싶다.(웃음)

글 이아림_객원 기자 사진 공간느루





울고 있는 자들이 그날을 기억하는 방식

영화감독 이승준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어떤 화려한 말이나 행동보다는
어쩌면 담담하게 나누는 대화이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이다.
카메라가 잘 닿지 않는 곳까지 카메라에 담으려 하는 몸짓 또한 그렇다.
제24회 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IDFA) 장편 부문
대상에 빛나는 <달팽이의 별>은 척추 장애를 가진 순호 씨와
시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영찬 씨의 느리지만 아름다운 삶을 그린 영화다.
이 영화를 연출한 이승준 감독은 달팽이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직하고, 고집스럽기도 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을 때, 또 한편의 한국 작품이 아카데미 대열에 함께했다. 이승준 감독의 <부채의 기억>이다. <부채의 기억>은 세월호 재난을 다룬 단편 다큐멘터리로 세월호 5주기를 기점으로 제작돼 해외의 우수 영화제에서 상영된 작품이다. 제작할 때부터 해외에 알릴 목적으로 만들어진 작품인 만큼 <부채의 기억>의 아카데미 후보 선정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한국을 대표해 만든 작품은 아니지만 한국 다큐멘터리로 아카데미라는 세계 무대에 선 최초 작품이기도 하고, 현실을 질료로 하는 다큐멘터리 고유의 특성상 작품이 품은 사건과 함께 주목받기 때문이다. 이승준 감독과 <부채의 기억>을 경유해 그의 다큐멘터리 인생 여정을 나누어 보았다.

뒤늦었지만 축하한다. 그리고 살짝 아쉽다. <부채의 기억>은 정말 많은 사람이 보았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영됐기 때문인 듯하다.

처음부터 공익 목적으로 온라인 기반 상영을 하겠다는 약속이 전제된 제작이었다. 전통적 배급 방식과 달라서 진행하면서 알게 된 것이 많다. 국내의 경우는 영화제 상영 조건에서 프리미엄 조항과 충돌해 고민한 적도 있고, 미국에서는 ‘더 뉴요커’ 구독자와 연동해 순식간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하기도 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경우 온라인 상영 중이어도 영화제에서 계속 상영됐다는 거다. 심지어 온라인에서 보고 극장 상영을 보기 위해 찾아온 관객도 있었다. 국경을 넘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알린다는 차원에서 유튜브 상영은 성공적이었다.

매체마다 문법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부채의 기억>은 온라인·영화·방송 모두 넘나든 거 같다. 작품을 만들 때 염두에 둔 점이 있는가?

나는 영화의 기본 문법을 방송에서 배웠다. 초등학교 때부터 TV 다큐멘터리영화를 보면 그렇게 좋았다. MBC <인간시대>를 보면서 성장했고, 진짜 실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감동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다큐멘터리를 하려면 방송국에 들어가야 하는 줄 알았다. 방송국 PD를 준비하다 몇 차례 고배를 마실 때 선배가 묻

더라. 다큐멘터리를 하고 싶은 거냐? 방송국을 가고 싶은 거냐? 깜짝 놀랐다. 한 번도 분리해서 생각한 적이 없던 거다.

실무 경험을 방송 기반으로 쌓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다큐멘터리가 방송이다 보니 방송 문법이 익숙하다. 특히 대중을 생각하며 작품을 만드는 자세는 방송에서 배웠다. 그러나 방송의 경우 다소 습관적으로 붙는 설명적인 내레이션이 편하지는 않다. 반면 영화는 방송에 비해 자유롭고, 몰입감도 있다. 그러나 지금 넷플릭스를 보면 대중적이면서도 자유롭고 몰입감 넘친다. 방송이나 영화나 처음부터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둘다 각각의 특성이 있고 이에 맞게 풀어가면 된다. 다만 방송과 영화가 잘못 섞이면 이쪽도 저쪽도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요즘 한다. 방송과 영화 문법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한국이 특히 심한 거 같긴 하다.

왜 ‘세월호’였느냐는 질문을 하고 싶다.

<부채의 기억>은 처음부터 한 가지 원칙이 있었다. 나에게 묻는 것이기도 했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였다.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그때로 돌아가야만 했다. 이것이 대전제였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2014년 4월 16일 2시간 동안 일어난 일을 파편적으로 접해 왔다. 대단한 진실이 아니고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고통의 시작이 거기에 있었다면 그 지점으로 다시 가야만 했다. 사실 고통스러운 기억은 대부분 지우려 애쓴다. 시간이 지나면 “됐다. 이제 그만하자.” 이런 식의 반응을 자의 반 타의 반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시간과 장소로 돌아가되 가능한 한 디테일하게, 심지어 분 단위로 타임라인을 만들었다. 그것이 주는 어떤 충격과 일깨움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동일한 시간대 아이들의 문자와 영상을 배 바깥의 구조 상황과 매칭한다면 고통의 근원을 짚어낼 수 있을 거 같았다. 그러나 처음부터 바로 그 바다 그 순간으로 가는 구성은 아니었

“왜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그때로 돌아가야만 했다.”



다. 오히려 배가 인양된 다음부터 역순으로 가려고 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워낙 널리 알려진 사실이니 현재의 고통을 거슬러 올라가는 구성으로 시작했다. 한데 그 시간을 경험하지 않은 해외 관객을 고려할 때 순서대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결과적으로 그 선택이 옳았다고 본다.

동의한다. 정공법으로 배가 침몰하는 과정을 시간 단위로 목도하면서 의도한 충격과 일깨움이 있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감정이 되살아나면서 그 고통의 현장으로 가게 됐다. 영화는 자료 영상으로 구성됐지만 대단히 영화적이다. 바다로 다가가는 오프닝에서 바다에서 빠져나오는 클로징도 그렇고, 고통의 순간을 시간 단위로 분절해 내는 게 기억의 메커니즘과도 닮아 있다고 여겨진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특히 인상적이다.

김관홍 잠수사 장면은 처음 그 멘트를 듣는 순간 엔딩이라고 생각했다. 영화를 기획할 때 앞쪽은 팩트 기반 정공법으로 덤덤하게 가지만 맨 마지막에는 누군가의 마음으로 들어갔으면 했다. 현장에 있던 유가족이나 잠수사의 마음을 담고 싶었다. 팩트만큼 중요한 것이 결국은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라 여겼다. 김관홍 잠수사의 말에는 공감을 불러오는 마음이 있었다. 그의 말을 되뇌면서 팽목항에서 새를 찍었던 기억이 난다.

영화를 만들고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마음이 움직이는 그 어떤 순간을 만나기 위해서다. 격렬한 희로애락의 그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 나에게 오고 그리고 지나가는 순간 고요하고도 차분하게 그리고 먹먹하게 남아 있는 그 어떤 파동이 있다. 그런 순간은 때론 너무나 일상적이다. <부재의 기억>의 엔딩이 그렇다. <달팽이의 별> 경우 역시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농담처럼 결혼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다. 평범한 일상의 순간이지만 그들이 주고받는 말 속에 마음의 결이 담겨 있다. 미세하고 작아 보이는데 쌓여가면서 관객이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드는 순간이 있다. 일상의 틈 속에 묻어나는 감정이랄까. 비어 있는 여백 속에서 읽히는 무엇이랄까. 그게 정치적 이슈든 사회적 이슈든 휴머니즘 이슈든 상관없다. 이에 비하면 사건을 통해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감동은 오히려 약한 거 같다.



이승준 감독의 다큐멘터리 <부재의 기억>(위)과 2010년작 <달팽이의 별>

이승준 감독은 사건의 표면보다 그 속에 담긴 감정의 결에 먼저 눈이 가는 사람이다. 사건을 알리거나 진실을 추구하거나 어떤 주장을 하는 근사한 작품도 많지만, 이승준 감독의 작품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에서 묻어나는, 혹은 품고 있는 '소소한 순간들'을 담는다. 그것들이 뿜어내는 미묘하고 다채로운 감정의 결을 '감동'이라고 한다면 그는 그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한다. 그의 작품들은 그가 마주한 현실에서 그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감각했는지 차곡차곡 쌓듯이 담아내고 있다. 기록에도 결이 있다면, 이승준 감독의 방식은 쌓는 기록이 아닐까.

해외 관객을 만났을 때 반응은 어떠했나?

처음에는 한국 사회를 반영하는 복잡한 맥락이 있어 해외 관객이 영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런데 상영이 끝나면 사람들이 눈이 빨개져 있고 훌쩍거리리는 거다. 영화 상영 중에도 한국인이 분노하고 반응하는 장면에서 해외 관객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관객과의 대화 때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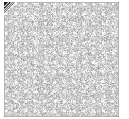
떠게 나왔다. 우리처럼 다들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해 국민이 죽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 지역에서 일어난 유사 사건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다. 영화가 한국의 로컬 이슈로만 읽히지 않는 거다. 이번 아카데미 레이스에서도 다섯 편 단편 다큐멘터리영화를 동시에 상영한 적이 있다. 그중에서 <부재의 기억> 반응이 단연 좋았다. 아카데미에 참여한 감독들 사이에서도 작품에 대한 지지와 반응이 뜨거웠다. 소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고 정말 뿌듯하고 감사했다.

이번 아카데미 레이스에 세월호 유가족 분들과 함께했다고 들었다. 이십전십이었다. 두 분 어머니가 함께해 주셨고, 아이들 이름표를 달고 레드카펫에 섰다. 세월호를 알리는 여정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었다. 그동안 힘든 시

간을 겪어온 분들에게 고통의 근원을 짚어가는 이 작품만이 할 수 있는 선물을 나누고싶었다. 레드카펫에 동반할 수 있는 일인으로 이분들께 부탁했고, 이에 대해 함께 간 제 가족들도 너무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막상 경험해 보니 레드카펫 자체는 미디어에서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르더라. (웃음)

아카데미 레이스 경험에서 본 것이 궁금하다.

단편 다큐멘터리나 장편 극영화나 다 똑같이 대우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모든 작품을 부문이나 장르 경계 없이 동등하게 영화로서 대해 준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분하는 다큐와 극영화, 단편과 장편의 차별(?)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미국 감독들은 장르를 막론하고 아카데미 후보가 되면 그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크다. 그러나 한국 돌아오니 달라진 게 없다. 나는 여전히 피칭 준비하고 트레일러를 만들어 옹호하고 있다. (웃음)



“따로 영화를 배우지 않아서
혼자서 다큐멘터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늘 갈증이 많았다.
그 갈증이 사람과 이어지면서
길을 만들어준 거 같다.”

**그래도 아카데미로 인해 세계 속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인증받은 셈이
다. 어떤 여정으로 다큐멘터리 감독이 됐나?**

대학 졸업 후 감사한 인연으로 이어진 분들이 있다. 앞서 나에 게 방송국이나 다큐멘터리나 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해준 선배를 만나 디자인 회사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맺은 인연으로 다큐멘터리 계간지를 내는 출판사에서 일하기도 했다. 여기서 다큐멘터리 사진 하는 분들과 함께 작업하게 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과 태도, 기록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배웠다. 시민방송 RTV에서는 6mm 작업과 휴먼 다큐멘터리를 원 없이 제작했다. 일주일에 4편씩 4년 동안 작업했다.

또 다른 인생 인연은 이성규 선배다. PC 통신에서 처음 만나 그와 함께 한 일이 너무도 많다. 인도에 함께 갔고, 그 선배 덕분에 영화와 방송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 인도에 가 함께 만든 첫 작품 〈보이지 않는 전쟁〉은 한국독립단편영화제(서울독립영화제 전신)와 서울인권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그리고 KBS 수요기획에서 안산 이주노동자를 담은 50분짜리 영상으로 입봉을 했다. 이후 〈신의 아이들〉도 만들어 생애 처음 해외 영화제에 나갔다. 따로 영화를 배우지 않아서 혼자서 다큐멘터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늘 갈증이 많았다. 그 갈증이 사람과 이어지면서 길을 만들어준 거 같다. 지금 생각하면 신기할 정도로 맞물리는 여정이었다.

첫 장편 작품 이후 거의 모든 작품이 해외 영화제에 소개되고 상영됐다. 〈신의 아이들〉로 처음 핫독스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나갔다. 해외 영화제가 처음이기도 했지만 나이 든 관객들이 극장을 가

득 메우고 있는 풍경이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다. 〈달팽이의 별〉은 기획 단계부터 국내외 다큐멘터리영화제와 적극적인 스킨십을 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해외 쪽을 잘 아는 김민철 PD와 함께 피칭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EBS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EIDF), 해외에서는 셰필드다큐멘터리영화제(Sheffield Doc/Fest)·홍콩아시아사이드업·암스테르담다큐멘터리영화제(IDFA) 등 다양한 경험을 했다.

나는 늘 다큐멘터리를 하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나를 구체적으로 질문해 왔다. 그렇게 새로운 세계가 하나 열리면 다시 그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또 질문했다. 그렇게 결과보다는 그 과정 과정에서 열린 길에 발을 내딛는 방식이었다.

이승준 감독은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었던 거 같다. 그게 무슨 차이인가 싶겠지만 그 미묘한 차이가 지금의 그를 만든 모양이다. 결과를 설정하고 욕망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하고픈 것을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아가며 해나가는 것이다. 그에게 그것이 ‘다큐멘터리’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진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다. 그게 정치든, 사회든, 인물이든 크게 개의치 않는다. 최우선순위가 아닌 것이다. 그의 프리즘을 통과하면 우리네 삶의 ‘주름’이 생긴다.

긴 시간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19 재난 상황과 당시 세월호 재난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차이점으로 어떤 부분이 있을까?

일단 숨기는 게 없다는 점이다. 투명하게 풀어가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다. 일의 처리에서는 미숙할 수도 있겠지만 일을 풀어가는 방향성에서는 투명하고 민주적이라고 본다. 다만 국가가 조금 더 강하게 나가도 될 거 같은데 하는 마음이 한편으로 들기도 한다. 내 생각에는 정부보다 언론이 그때와 똑같다는 점이 가장 답답하고 무섭다. 시민사회에서 자정 작용을 일정 부분 하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본다.

글 이승민 영화평론가 사진 공간느루

모든 딸을 위한 해금 연주

강은일

해금 연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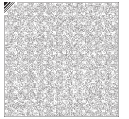
강은일은 한양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했다. KBS국악 관현악단 단원, 경기도립국악단 해금 수석,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단국대학교 국악과 교수, 해금연구회 이사, 해금 앙상블 활 예술 감독, 강은일해금플러스 대표, 서울돈화문국악당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동아국악콩쿠르(1998), KBS 국악대상(2004), 문화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2006),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대통령 표창(2019) 등을 수상했다.



“세상은 지금까지 여성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두 줄의 선율로 전통음악의 세계화에 앞장선 해금 연주자 강은일 씨는 2월 22~23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한 <오래된 미래: 내 엄마의 엄마의 엄마의 이야기>를 제작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이 공연은 자신의 딸부터 엄마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네 세대를 넘나드는 여성들의 대서사시다. 원래는 신라 경덕왕 때, 죽은 누이를 그리워하는 '제망매가(祭亡妹歌)'에서 착안했는데, 엄마와 할머니가 겪었던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부제를 '제망모가(祭亡母歌)'로 정했다. “태어날 때 아들이 줄 알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강 감독은 손자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부엌에서 홀로 드시는 할머니를 보고서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한국 전통음악의 선두주자로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그였지만 때로는 세상이 던지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여성으로서 꿈을 펼치기 쉽지 않았다고 했다. 4대에 걸친 여성 이야기를 들려주는 공연에 각자의 영역에서 명성을 떨치는 네 작곡가가 참여했다. 우선 잉태를 주제로 하와이와 제주도의 민요 느낌을 살린 도널드 워맥, 스페인 카탈루냐 내전과 한국의 내전을 교차해 전쟁과 여성을 표현한 모이세스 베르트란, 미국 이주민 당사자로 사회적 차별에 힘들어 했던 우디 박과 밝은 여성상의 희망을 던지는 김성국까지. 이들이 들려주는 네 공연은 현대음악, 클래식 음악, 전자음악(EDM), 전통까지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음악이 차례로 이어진다. 거기에 공연의 마지막은 강 씨의 제자들로 구성된 10명의 딸이 출연하는데,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세상의 모든 딸에게 전하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진정한 인간다움은 무엇일까?”

“주변의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인간의 이중적 잣대를 드러낸 <대신 목자> (3월 6~15일,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의 한태숙 연출가의 말이다. 동물원을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은 버려서는 안 될 것을 버린 것에 대한 동조와 자책을 일깨우는 심리극이다. 어린이의 팔을 물어뜯은 늑대가 조사 도중에 우리를 탈출하는 소동이 발생한다. 늑대를 죽이라는 여론의 압박을 받는 사육사가 늑대를 풀어줬다고 의심받는다. 심지어 수사관도 승진에서 배제된 채 자기 극복을 하지 못하는 불쌍한 인간이다. 남자에게 배신 당한 어머니는 아들을 버린 과거가 있다. 그 남자도 자식을 잃은 상처를 안고 있다. 이처럼 등장하는 모든 배역이 ‘세상에 버려진 것들’로 가득 채워졌다. 무엇이 이들을 극한으로 내몰았을까. “집 앞 야트막한 산자락에서 마주친 길고양이에게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요. 인간에게 내쫓긴 동물이 하찮은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작가의 무한한 상상력을 더해 인간의 비정한 단면을 그려낸 설정은 40년 이상 이어온 한 연출가의 경력에서도 하나의 흐름을 이룬다. 첫 희곡이자 대표작 <서안화차>, 근친상간 때문에 죽음으로 귀결되는 <오이디푸스>도 내밀한 심리 상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40년 전 일간지 신춘문에 희곡으로 등단했지만 기계적으로 반복된 방송작가 일에 상실감을 느껴 12년 만에 연극계로 돌아왔다. 컴백작도 자매의 경쟁심으로 범죄에 이르는 심리 스릴러로 정했다. “내가 원치 않던 삶에서 보여도 보지 않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 당면한 상황을 외면하면서 살아왔던 인간의 부끄러움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정한 인간다움의 기준에 정답이 없어요. 연극을 본 모든 관객이 이런 인간 모습의 다양성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극한 상황 속 인간성 찾기

한태숙 연출가



한태숙은 서울예대에서 극작을 전공했다.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희곡 <자장자장 자>(1981)가 당선된 뒤 12년 만에 뒤늦게 연극계에 돌아왔다. <레이디 맥베스>로 서울연극제 작품상·연출상, <서안화차>로 김상열연극상과 동아연극상 작품상·연출상, <오이디푸스>로 이해랑연극상, <대학살의 신>으로 대한민국 연극대상 연출상을 받았다. 현재는 극단 물리 대표와 경기도립극단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소소한 것들, 사람 냄새 나는 것들

배삼식 극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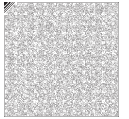


배삼식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하얀 동그라미 이야기〉(1998)를 시작으로 번역극과 창작극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정극과 마당놀이, 음악극에 이르기까지 여러 무대예술 장르의 밑그림을 빼어난 솜씨로 그려내고 있다. 제15회 대산문학상 희곡부문(2007), 〈열하일기만보〉로 동아연극상 희곡상(2007), 〈하얀앵두〉로 동아연극상 희곡상(2009)을 수상했다.



“한국의 셰익스피어, 배삼식”

국립극장 개관 70주년 기념공연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국립극단(예술감독 이성열)이 올해의 첫 공연으로 선정한 〈화전가〉(당초 2월 28일~3월 22일 공연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잠정 중단)의 원작자를 이렇게 소개했다. 국립극단이 배 작가에게 삼고초려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이니, 여기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가늠할 만하다. “처음엔 고사했지만, 70주년이 주는 무게에 짓눌리기보다 극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죠.” 작품은 궁궐롭게 국립극장이 개관한 1950년이 배경이다. 6·25를 앞두고 오직 서로에 의지한 채 살아가는 여인들의 이야기. ‘화전가’는 원래 여인들이 꽃잎으로 전을 부쳐 먹으면서 하루를 즐기는 봄꽃놀이다. 무대엔 엄마와 딸, 며느리 등 규방여인들만 9명이 등장한다. 당시의 남자들은 독립운동을 위해 집을 나갔기 때문에. 어머니의 환갑 잔치를 위해 모인 여인들이 하룻밤 사이에 벌이는 수다인데, 일제 강점기엔 할 수 없었던 마지막 화전놀이의 추억을 딸과 며느리에 심어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을 전한 것이다. 작품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역사적으로 풀지 않았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이야기로 시간을 채웠다. 이것은 배 작가가 평소에 “사람 냄새가 나는 작품을 쓰고 싶다”고 밝힌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요즘은 너무 많은 의미에 치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소소한 기쁨은 놓치고 있죠.” 남자들이 대의를 위해 떠난 것에 대비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작은 즐거움을 표현했다. 그는 연극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예술은 그 자체만으로도 배가 부르지도, 갈증을 달래주지도 않아요. 극 중 어머니가 허망한 아름다운 순간을 딸과 며느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처럼 연극도 그런 역할이 아닐까요? 누군가에겐 무의미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수적인 한국 문학계에 이런 시도가 괜찮을까?”

등단한 지 17년이 지났지만 새로운 것을 고민한 김서령 소설가는 2012년 이후 네 번째 소설 《연애의 결말》을 내놓았다. 페이스북 프로필에 ‘소설, 에세이, 번역도 하고 책을 만드는’ 일을 한다고 소개하지만 소설가 말고는 되고 싶은 것이 없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소설은 그에게 숙명이었다. 지난해엔 직접 출판사를 차려 등단 유무에 상관없이 좋은 작가를 발굴하는 일도 시작했다. 이렇게 나온 책은 출판사의 이름을 내건 ‘폴앤니나 소설시리즈’. 지난해 10월, 회사를 시작하면서 발간한 첫 번째 소설 《달콤한 밤 되세요》(노정 저, 드로잉메리 그림)는 마케팅을 위해 텀블벅에서 모금을 했는데 목표액의 5배가 넘었을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이어 2월 12일에 발간한 두 번째 《애비로드》(최예지 저, 살구 그림)와 세 번째 그의 작품 《엔 공통점》이 보인다. 소설과 일러스트의 만남. 지금까지 걸어온 한국문학과 전혀 다른 길을 나서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 김 작가는 따분하고 어두운 문학계에서 “어떻게 하면 독자의 손에 책을 쥐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기 때문이란다. 만화를 찢고 나올 듯한 표지는 소설의 책장을 넘기고픈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는 이미 포털사이트에서 고정 팬을 확보한 일러스트 작가 제딿을 섭외해 그림을 부탁했다. 출판사 이름도 자신이 ‘애정하며’ 즐겨 봤던 만화 《이상한 나라의 폴》의 두 주인공에서 따왔다. “단지 원고만 던져주고 교정본이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기성 출판사 방식이 아니에요. 작가와 책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해요. 제가 좋아서 입에 달고 살았던 주제처럼 저만의 방식으로 책을 만들고 싶었어요.” 발간하는 책마다 화제를 몰고 오는 스타 작가이지만 남들이 걷지 않은 길을 선택한 그에게 박수를 보내는 이유는 독자를 배려하는 마음 씀씀이에 있지 않을까.

소설과 일러스트의 만남

김서령 소설가



김서령은 포항에서 태어나 《현대문학》 신인상(2003)으로 데뷔했다. 소설집 《작은 토끼야 들어와 편히 쉬어라》《어디로 갈까요》, 장편소설 《티타티타》, 산문집 《우리에게 일요일이 필요해》《에이, 뭘 사랑하지 하고 그래》, 번역 출판 《빨강머리 앤》《에이번리의 앤》《마음도 번역이 되나요 두 번째 이야기》, 공저 《피크》《캣캣》《무민은 채식주의자》가 있다. 현재는 도서출판 폴앤니나에서 책을 만들고 있다.

스타 PD의 인생 후반전

주철환

프로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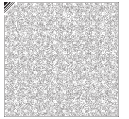


주철환은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동북중고 교사로 시작해 문화방송(MBC)에서 〈장학퀴즈〉 〈일요일 일요일밤에〉 〈우정의 무대〉 등 수많은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그 후 이화여대 교수, OBS경인TV 사장, JTBC 대PD,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인연이 모여 인생이 된다》(2015), 《더 좋은 날들은 지금부터다》(2013) 등이 있다.



“재미있게 살다가 의미있게 죽자.”

TV에서 수많은 히트 프로그램을 기획·연출한 프로듀서(PD)였던 주철환은 공석이든 사석이든 인생의 좌우명을 이렇게 되새겼다. ‘열심히 살기’보다 ‘즐겁게 살기’를 강조하던 그였기에 전혀 색다른 것도 아니다. 지금은 나영석·김태호 등 이름이 제법 알려진 예능 PD(들)이 있지만 스타 PD의 원조가 주철환이라는 데 이견을 제시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15권의 책을 발간할 정도로 독자와 소통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국어교사로 시작해 국문학 박사도 오랫동안 글을 써온 그는 출판계에서도 편집자가 가장 좋아하는 필자로 정평이 나 있다. 틈날 때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신문이나 각종 지면을 통해 펼쳐온 그가 지난 2월 28일에 자신의 좌우명으로 제목을 붙인 에세이집 《재미있게 살다가 의미있게 죽자》를 펴냈다. 개인적으로 필자가 근무하는 문화재단의 대표로 그가 일하는 스타일을 2년간 바로 옆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그는 평소 ‘더다이즈’를 자주 이야기하는데 이는 예술의 생활화를 통해 ‘더’ 새롭고 ‘다’ 행복하게 살자는 뜻을 담고 있다. 2020년 봄 학기를 마지막으로 방송사와 학교를 오가던 40년 가까운 직장 생활을 마감하고 자유인이 되는 그에게 이번 신간은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선언이자 다짐이다. 속이 상하면 겉도 상한다고 믿는 그에게 사실 정년은 무의미할지도 모른다. 이 책은 한마디로 영원한 청년이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며 쓴 즐거움의 출사표다. 영원히 현역일 것 같은 그에게 아직도 못다 한 이야기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넉넉한 웃음으로 대답했다. “17, 18번째 책도 준비 중입니다. 문화예술 현장 보고서인 ‘주철환의 더다이즈’부터 대중가요의 가사로 인생을 관찰, 통찰하는 노래 채집가의 이야기 ‘주철환의 음악동네’까지 우리가 인생에서 발견, 발굴해야 할 즐거움의 요소는 끝이 없죠.”



“기존의 책이 현장의 생생함을 살리지 못했어요.”

편집자 출신의 큐레이터이자 미술비평가인 조숙현 씨가 최근 번역서 《한스 올리히 오브리스트의 큐레이터 되기(Ways of Curating)》를 발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브리스트가 누구인가. 70년 전통을 가진 영국의 예술매체 《아트리뷰》에서 매년 발표하는 ‘현대예술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두 차례나 1위에 오를 정도로 큐레이터의 전설로 꼽히는 인물이다. 지금까지 큐레이터에 대한 번역서가 몇 권 나왔지만 그마저 2015년에 국내에 도입된 일이라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말했다. 조 씨는 졸업 이후 4년 동안 독립 큐레이터 및 월간지 편집자로 일하면서 “생각보다 현대미술 서적의 종류가 많지 않아 책에서 영감을 얻을 기회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어느 대학원의 큐레이터과에선 지원자가 급감해 수업이 취소될 정도로 수요가 적은 것도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대중이 오해하고 있던 ‘큐레이터’를 정확히 알리고 싶어 오브리스트의 책을 선택했다. 이 책은 그의 개인적 매력보다는 학구적 콘텐츠에 집중했으며, 큐레이터를 꿈꾸는 이들에게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큐레이터는 단순히 작품을 섭외해 공간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큐레이팅의 모든 과정을 통해 전시 주제에 부합하는 작가 발굴과 연구까지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죠.” 이는 “전시 아카이빙의 역사는 깊은데 큐레이팅과 관련된 도서는 부족하다”고 말한 오브리스트 말처럼 조 씨는 현장에서 겪은 아쉬움을 덜어내고자 지난해 현대미술 전문 출판사인 아트북프레스(ArtBookPress)를 설립했다. “인프라 비용을 줄여서 전문가에게 외주를 맡긴 독립출판사입니다. 발간을 기념하면서 기획자, 번역가, 공간 대표 등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전시도 열었어요. 모든 답은 현장에서 나오거든요.”

글 이규승_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현장 속 큐레이터’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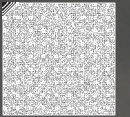
조숙현

큐레이터 겸 미술비평가



조숙현은 홍익대학교 경영학과에서 학사, 연세대학교 영상 커뮤니케이션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필름 2.0》과 《퍼블릭아트》에서 취재기자로 일했다. 큐레이터 경력으로는 강원국제비엔날레2018 〈악의 사전〉, 인천문화재단2018 〈바로 오늘〉이 있고, 김기라×김형규 〈X-사랑〉에서 디렉터로, 인천아트플랫폼(2020) 입주기획자로 참여했다. 저서로는 《내 인생에 한 번, 예술가로 살아보기》(2015), 《서울 인디 예술 공간》(2016)이 있다. 《아트인컬처》에서 2020 YoungPower111로 선정됐다.





보이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더 몸을
움츠리며 눈과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사이 거짓말처럼
사월도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로 떨어진 그대 고개 들어
못 생명들의 푸르름을 당당히
즐기시길 권합니다.
선잠 꿈 깨듯 잠깐 사이
모두 떠나기 전에

〈청계천의 봄〉

글·사진 김영호_서울문화재단

더 나아가기 위한 멈춤

재난의 위기 속 문화예술 길 찾기

순식간에 전 세계로 번져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위축됐다. 이 전쟁은 언제 끝날지, 위축된 심리가 얼마나 빨리 회복될지 가늠할 수 없다.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지만 희망을 잊지 말자. 14세기 유럽을 덮친 흑사병은 당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르네상스 시대의 서막을 여는 계기가 됐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바우하우스'로 디자인 혁명이 일어났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추상미술의 새로운 움직임이 번져갔다. 전염병이나 전쟁 같은 재난이 일순간 문화계를 위축시키지만 그것을 거름 삼아 예술은 새로운 꽃을 피워낸다.

‘방구석 1열’로 모여드는 관객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기 전에 문화계가 먼저 패닉(공황 상태)을 경험했다. 예정됐던 내한 공연과 대규모 행사는 줄줄이 취소됐고 지난 2월 23일 국가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의 ‘심각’으로 격상된 것을 기점으로 공연장·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들은 일제히 문을 닫았다.

황망했다. 예술가들을 비롯해 관계자들은 오랜 시간 준비한 공연을 접어야 했고, 계획된 전시는 중단이 불가피했으며, 그 와중에도 개막을 강행한 문화행사들은 ‘무관객’을 감수해야 했다. 사람이 많은 공간에 가는 것을 자제하는 분위기에 서점마저 텅 비었다.

속수무책이었다. 예술인복지재단 등 정부 기관에서 예술인 긴급 지원에 나섰고, 서울문화재단을 비롯한 문화재단들은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예술가들에게 활동비를 우선 지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지책이라도 짜내야 했다. 문화 수요자들을 공연장·전시장으로 끌어낼 수 없다면 예술 콘텐츠를 집 안에서 즐길 수 있게 하자는 데 생각이 이르렀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매장 방문 고객이 줄어든 대신 배달·배송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영화관을 찾지 않는 대신 집에서 즐기

는 VOD 매출이 급등한 것을 문화계에도 접목한 것이다.

직접 전시장이거나 공연장을 방문하는 게 어려워진 사람들은 온라인 생중계로 공연을 즐기고, 가상현실(VR)로 전시를 관람한다. 공연은 무대 위의 열기를 느껴야 생생하고, 전시는 직접 대면해 공감해야 ‘제대로’ 감상할 수 있지만, ‘방구석 문화생활’에 대해 관객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코로나19로 조기 폐막한 전시를 ‘온라인 전시투어’로 재포장해 SNS에 게시했고 조회 수는 일주일 만에 1만 4,000회를 넘겼다. 이는 미술관이 SNS 계정을 개설한 지 6년 만에 거둔 최다 조회 기록이었고 호평이 잇따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온라인 소장품전과 VR관람을 마련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전국 국·공·사립박물관 263곳의 소장품 178만 건을 공개하는 ‘e뮤지엄(emuseum.go.kr)’을 활용해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기획 공모전도 진행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서울시 ‘잠시 멈춤’ 캠페인의 일환으로 베토벤 교향곡 제3번 ‘영웅’을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1시간가량 생중계했다. 평일 낮이었지만 유튜브 실시간 접속자 수는 2,800여 명, 페이스북 실시간 접속자 수는 350여 명에 달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창작산실 무용 작품 〈히트 앤 런(Hit&Run)〉의 경우 현장은 ‘무관중’이었지만 네이버 생중계로 공개돼 긍정적인 댓글이 잇따랐다. “실제로 보고 싶다” “극장에서 보고 싶은데 아쉽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지금은 문화예술 생태계가 붕괴를 우려할 정도로 위기에 직면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가 촉매로 작용해 문화 콘텐츠를 VR·AR과 접목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등 문화의 새로운 장(場)이 열릴 것이라는 ‘청신호’가 포착되는 지점이다.

질병을 앓고 나면 면역력이 생기듯

지난 역사를 살펴보자. 미술사학자인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흑사병 시대를 선례로 들며 “예술적 성과가 일순간 후퇴하고 창의력의 원천인 여행이 막히면서 예술가들의 활동도 멈췄지만, 질병 극복을 위해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는 이성주의 시대와 함께 르네상스가 열렸다”고 설명한다. 몸이 검게 타들어 간다고 해서 흑사병(Black Death)이라 불린 페스트는 1347년에 유럽 전역을 강타했고 90%대의 치사율로 당시 유럽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중세 사람들은 신에게 의지하고 기도를 약삼아 버텼지만 오히려 혼란의 시대가 이어졌다. 병이 보이지 않는 화살처럼 몸을 파고든다고 생각한 중세인들은 화살로 처형당했다 살아난 성 세바스티아누스의 그림을 걸어놓고 치유를 염원하거나, 성당이 아닌 시장 안에까지 ‘성모자상’을 그려놓는 등 심리적 의지처를 갈구했다. 물론 그림이 병을 낫게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유럽을 휩쓴 전염병은 “피렌체 도시 자체가 거대한 무덤이었다”고 한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1351) 같은 문학작품, 의학의 일종인 해부학을 연구해 인물화에 접목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거장의 활약에 상당한 자극제가 된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이 삶의 근간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와중에도 예술가들이 새로운 미래를 꿈꿨다. 먹고 살 길 막막하던 시절 김환기·유영국 등의 화가들은 모던아트협회나 신사실과 등을 결성했고, 부산에 모여 작



안드레아 만테나
〈성 세바스티아누스〉,
1480년 작.
루브르 박물관 소장

업하면서 한국 현대미술의 물꼬를 틔웠다. 전장에 뛰어들은 종군화가들은 전쟁 기록화만 남긴 게 아니라 전쟁의 고통을 승화한 새 경향의 작품들을 선보이기도 했다. 질병 이후에는 상흔만 남는 게 아니라 ‘면역력’이 더해진다. 우정아 포스텍 교수는 “현대미술이 어떻게 상실을 극복하고 사회적 상처까지도 어루만지는지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현대의 많은 미술가들은 재난을 거치며 잃어버린 것들, 사랑하는 이들과 사회에 대한 믿음 등 소중한 것들을 ‘올바르게’ 기억하기 위해 작업했고 관객 및 대중과 이를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잠시 멈춤의 상태인 지금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기회다.

글 조상인·서울경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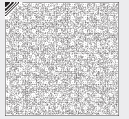
11만 명이 마음약방 자판기 앞에서 잠시 멈춘 ‘질문’의 시간

마음약방 5년을 마무리하며

‘헬조선’ ‘N포세대’ ‘이태백’ 등 자조적인 단어들로 한국 사회의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던 2014~2015년 무렵, 무한 경쟁의 무게에 짓눌린 많은 이들에게 ‘치유’가 필요했다. 2015년 2월 시민청에 처음 등장한 ‘마음약방’은 예술적인 상상력과 위트로 치유의 힌트를 제안하는 캠페인이었다. 그간 11만여 명의 시민에게 소박한 처방전을 건넨 ‘마음약방’이 지난 2월 운영을 마쳤다. 함께한 사람도, 우여곡절과 에피소드도 많았던 5년의 소회를 지면에 옮긴다.



대학로 서울연극센터에 문을 연 마음약방 2호점



“마음을 치유하는 자판기. 500원을 넣고 자판기 버튼을 누르면 미래막막증, 사람멀미증, 자존감 바닥 증후군 등 20가지 증상에 대해 저마다 다른 내용의 글과 그림으로 치유한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마음약방’을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이다. 네이버 국어사전에도 등록돼 있는 마음약방. 2015년 2월 시민청에 문을 연 마음약방 1호점과 같은 해 12월 대학로 서울연극센터에 생긴 마음약방 2호점이 만 5년간의 운영을 마치고 지난 2월 말에 퇴장했다. 계절이 스무 번쯤 바뀌는 동안 서울문화재단의 수장도 두 번이 바뀌었고(조선희 소설가에서 주철환 프로듀서로, 그리고 김종휘 현 대표까지), 마음약방은 재단 내 다양한 부서(시민문화팀·공공예술센터·문화기획팀·지역문화팀)를 거쳤다.

‘마음약방’이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곳은 당시 협력사로 함께한 HS애드(김지영 부장). 이를 비롯해 자판기 운영에 시민청과 서울연극센터가 힘을 보탰고, 도브투레빗과 이오노이 스튜디오가 자판기 및 부스의 디자인을 맡았으며, 한일밴딩과 술공방의 대표가 제작에 참여했다. 또한 처방 패키지 제작에는 이철수 목판화가, 조선희 소설가, 고도원 작가 등 예술가들과 후원 기업이 함께했고, 11만여 개의 패키지를 제작한 인쇄업체 신광섭 부장까지 정말 많은 이들이 수고를 나눴다.

마음약방이 탄생하기까지

무엇이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음약방 운영을 함께하도록 만들었을까? 아마도 마음의 치유·처방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당시에 넓게 형성됐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마음약방이 등장하기 1년 전인 2014년은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 여러 이유로 온 사회가 어둡고 암담했다. “이게 나라냐?”라는 절망의 목소리가 높았고, 청년들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3포 세대’로 명명됐다. 경쟁에 시달리며 쌓인 피로감과 체념의 공

기가 한국 사회 전반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2014년 하반기, 무한경쟁·각자도생을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문화예술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라는 취지로 ‘도시게릴라 프로젝트’ 워크숍이 열렸다. 그리고 새로운 공공예술인 도시게릴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동시대 고단하고 지친 이들의 마음을 예술적 상상력으로 치유해 보자는 마음 치유 캠페인 사업에 뜻이 모였다. ‘마음약방’이란 명칭과 20종의 증상, 각 증상별로 특화된 처방이 서울문화재단과 실행 파트너 HS애드를 오가며 다듬어졌다. 특히 20가지 증상의 이름은 2014년 12월 시민 849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됐다.

마음약방 1호점 처방 패키지 증상명(2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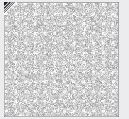
꿈 소멸증, 의욕상실증, 가족남남신드롬, 급성연애세포소멸증, 월요병 말기, 현실도피증, 인생낙오증후군, 유행성 스마트폰 중독, 미래막막증, 상실후유증, 습관성 만성피로, 예민성 경쟁과다증, 마음요요현상, 노화자각증강, 긴장불안 증후군, 자존감 바닥 증후군, 사람멀미증, 후천성 실어증, 외톨이 바이러스, 분노조절장치 실증

마음약방 2호점 처방 패키지 증상명(21개)

경력발달장애, 용기 부전, 급여 상실증, 아르바이트라우마, 작심 3일-ness, 피터팬 증후군, 스펙티쉬 강박증, 과민성 멘탈장애, 상사병, 열정 페이즈, 월요병 말기, 꿈 소멸증, 외톨이 바이러스, 유행성 스마트폰 중독, 분노조절장치 실증, 미래막막증, 자존감 바닥 증후군, 급성연애세포소멸증, 예민성 경쟁과다증, 상실 후유증, 가족남남신드롬



마음약방 1호점



2



3

당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달고 있었다. HS애드의 김지영 부장은 자살률과 연관성이 높은 ‘우울증’이라는 마음의 병을 자판기라는 위트 있는 소재를 통해 접근한다는 메시지로 ‘마음약방 자판기’를 칸 광고제에 출품했고, 건강 부문에서 은상을 받아 전 세계에 마음약방 캠페인이 알려지는 성과를 얻었다. 그뿐만 아니라 2016년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한국광고주협회 주관)의 OOH(Out of Home) 부문에서 ‘좋은 광고상’을, 올해의 광고상(한국광고학회 주관)에서는 ‘옥외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탄생 배경부터 제작 과정, 운영 기간에 일어난 에피소드에서 사회적 반향에 이르기까지, 마음약방은 사업 안의 작은 아이템으로서 거둘 수 있는 성과 그 이상을 거두기도 하고, 사업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협업과 연대의 새로운 모델이 됐다. 한강몽땅축제나 서울거리예술축제에 나갔을 물론

제주도립미술관, 대구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마음약방을 사용하고 싶다는 요청에 조건 없이 기꺼이 운영 방법부터 처방까지 공유했다. 처방 패키지가 필요한 곳에는 패키지를 제공하기도 하고, 자판기만 필요한 곳에는 자판기 맞춤형으로 다양한 쓰임새가 만들어졌다. 모금액 중 일부는 2019년 남산예술센터 시즌 프로그램 개막작이던 구자혜 연출의 연극 <7번국도>의 문자 통역과 수어 통역, 그리고 음성 해설을 제공하는 배리어프리 환경 지원금으로 쓰이기도 했다.

마음치유 캠페인을 하면서 누구라도 마음 다치는 일을 우리 스스로 만들지 않기를, 그리고 내 마음이 한 뼘이라도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랐다. 마음약방의 결산 원고를 쓰면서 접한, 마음약방 1·2호점의 총 이용 건수 ‘11만’이라는 숫자가 새삼 놀랍다.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그동안 마음약방을 만드는 데 기여한 분들의 이름을 찬찬히 떠올려보지 않을 수 없다. 소설가 조해진의 작품 <단순한 진심>에는 그런 대목이 있다. ‘타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인간이 타인을 끌어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말이다.

글 오진이_서울문화재단 전문위원 사진 서울문화재단

마음약방과 함께한 사람들의 한마디

황은아(2015~2016년 ‘마음약방’ 담당자, 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업개발본부 팀장) 마음약방의 탄생에 얽힌 에피소드는 언제 떠올려도 재미있고, 감사한 경험이다. 2014년 겨울에 선정한 20개 증상이 2020년 봄에도 유효하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여전히 불안한 사회이고,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걸 새삼 느낀다.

김지영(2015년 HS애드 부장, 현 브로컬리 대표) 이슈성으로 진행되는 광고 캠페인과는 달리, 마음치유 캠페인이 5년 동안 진행된 것은 운영진의 공이다. 캠페인은 아이디어만으로 성공하지 않는다. 아이디어에 생명을 불어넣어 준 재단 운영진에 감사드린다.

김진환(2015년 서울문화재단 공공예술센터 과장, 현 지역문화팀장) 공급자 중심의 기존 공공기관 문화 사업과는 다른 시민들의 호응을 직접 접하는 사례라는 의미도 있다. 마음증상에 대해 진단과 처방 모두 진지한 접근보다는 가벼운 호명과 공감으로 접근한 점이 장점이 아닐까 싶다.

유민성(현 담당자,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주임) 2015년 12월, 서울연극센터에서 마음약방 2호점 론칭 행사 때, 팀원들 모두가 약사 가운을 입었던 모습이 기억난다. 5년 동안 지나쳐 간 여러 담당자와 함께해 주신 많은 분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지난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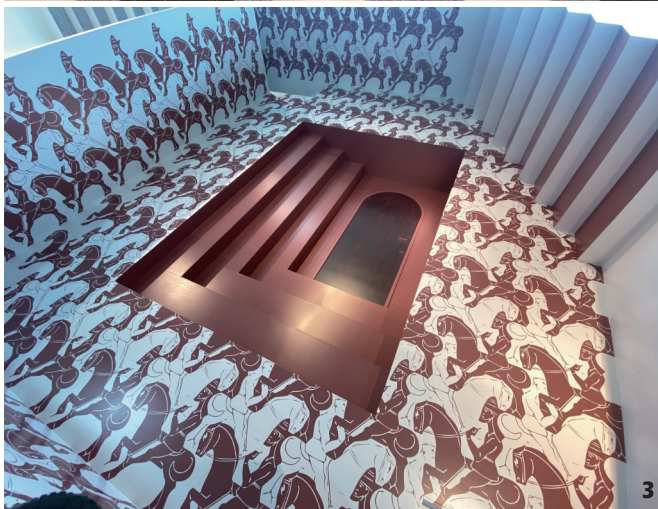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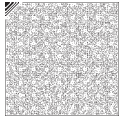
예술의 새로운 물결을 만난다

서울웨이브 아트센터

잠원 한강공원에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이 지난 1월 새롭게 문을 열었다. 독특한 외관으로 보는 이들의 호기심을 자아내는 '서울웨이브 아트센터'다. 개관 전부터 서울문화재단과 일찌감치 인연을 맺은 이곳은 문화 예술에 남다른 뜻을 둔 공간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개관 기념 전시인 <환상의 에셔전: EX!T-에셔의 방>을 진행한다.

2020년 1월, 잠원 한강공원 내에 서울웨이브 아트센터가 새롭게 개관했다. 문화예술계의 이목을 끈 이곳은 한강시민공원과 선상을 연결하는 작은 다리와 함께 그 이름과 잘 어울리는 물결무늬의 외관을 드러냈다. 서울웨이브 아트센터는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데, 건물 안에서 사방으로 시원하게 난 창을 통해 바깥을 바라보면 서울을 대표하는 두 랜드마크인 서울N타워와 여의도 63스퀘어(63빌딩)를 아우르는 파노라마 뷰를 감상할 수 있다. 넓고 투명한 유리창으로 낮에는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해 질 무렵에는 하늘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노을이 내다 보여, 서울과 한강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장소로 벌써부터 각광받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이 서울웨이브 아트센터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2019년 겨울, 재단이 주최한 '서울메세나의 밤' 행사를 통해서다. 당시 서울웨이브 아트센터는 정식으로 개관하기 전이었음에도 문화예술을 후원하고 기부하는 문화예술 협력자들을 위해 흔쾌히 공간을 제공할 정도로 문화예술에 남다른 뜻을 둔 곳이다. 화이트 내벽을 기본으로 한 100평형(약 311m²) 규모의



1 서울웨이브 아트센터 외관

2, 3 서울웨이브 아트센터에서 열고 있는 전시 <환상의 에셔전: EX!T-에셔의 방>

가변형 공간인 1층과 300평형(약 992m²) 규모의 2층은, 전시는 물론 공연까지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강의 수면을 눈앞에서 바로 볼 수 있는 매력이 있다. 3층 옥상은 야외 공간으로, 한강의 선선한 바람과 함께 즐길 만한 각종 소규모 행사나 축제를 개최하기 좋은 공간으로 기대된다.

개관 기념전 <환상의 에셔전: EX!T-에셔의 방>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셉션>(2010)에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서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꿈인지 인지하기 위해 현실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인간의 모습이 등장한다. 서울웨이브 아트센터가 개관을 기념하고자 기획한 전시 <환상의 에셔전: EX!T-에셔의 방>을 감상하면서 영화 <인셉션>을 보던 그때처럼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서 있는 기분이 들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비롯해 수많은 아티스트와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에게 깊은 영감을 준, 20세기를 대표하는 혁신적인 예술가 마우리츠 코르넬리스 에셔(Maurits Cornelis Escher) 이번 전시에서는 에셔의 독창적인 작품을 21세기의 기술로 재해석해, 지극히 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탈출구를 제시하는 마법 같은 순간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본 전시는 공간의 개관전답게 서울웨이브 아트센터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보여준다. 전시는 관객으로 하여금 작품을 단순히 '관람=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게 만든다. 미술에 수학과 과학을 접목하는 데 천부적인 재능을 보인 에셔의 작품 세계처럼 VR 전시와 특별 제작된 대형 설치 작품 및 오브제를 통해 그 '기하학한' '환영의' 작품에 들어가 에셔가 보여주는 공간 재창조의 마술을 느낄 수 있게 구성됐다.

당대 수학자들과 과학자들로부터도 큰 주목을 받은 에셔의 작품은 우리의 감성뿐만 아니라 이성에도 기분 좋은 자극을 선사한다. 본 전시에서는 미술과 수학의 접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창의미술, 수학체험전을 함께 운영한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니 관심 있는 학생들과 어른들까지 두루두루 좋은 경험이 될 듯하다.

아티스트의 상상력과 다양한 실험의 장으로 개관한 서울웨이브 아트센터는 이후 가족뮤지컬 <닥터 두리틀>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자 한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문화예술계에 서울웨이브 아트센터가 조금씩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길 기대한다.

글 김이경_서울문화재단 메세나팀 사진 제공 서울웨이브 아트센터

지금, 여기 도달한 세계의 춤

무용 <검찰관>과 <4&9>

세계 무용계의 주목을 받는 두 단체가 내한한다. 캐나다 출신의 크리스털 파이트는 유수의 무용 단체에서 러브콜이 쇄도하는 안무가로, 동시대 컨템퍼러리 댄스 가운데서도 단연 독특하고 매력적인 스타일을 보여준다. 중국의 젊은 안무가 타오 예는 중국의 문화와 사상을 반영한 동양적인 미감, 명상하는 듯한 미니멀한 안무 스타일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비슷한 기간에 동양과 서양의, 자신만의 색깔이 뚜렷한 이들의 작품 세계를 음미할 수 있는 기회다.

※이번 호에 실린 공연·행사 등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무용 <검찰관>

컨템퍼러리 시대의 종합예술

키드 피벗 <검찰관> | LG아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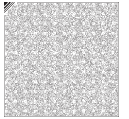
특정한 의미를 담거나 플롯을 표현하기 위한 춤은 진정한 의미의 춤이 아니라고 여기던 때가 있었다. 모든 예술 장르에 시대 사조가 존재하듯, 무용 역시 스토리 중심의 클래식 발레에서 다양성과 실험을 보여주는 컨템퍼러리 댄스로 중심이 옮겨왔다. 그런 면에서 안무가 크리스털 파이트(Crystal Pite)와 키드 피벗(Kidd Pivot)의 행보는 조금 독특한 지점이 엿보인다. 미니멀리즘이 아닌 맥시멀리즘을 지향하며, 일종의 무용극과 같은 종합예술 형태의 작품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크리스털 파이트는 움직임의 기반으로 음악과 텍스트, 조명·무대 등 풍부한 비주얼을 융합한 새로운 차원의 무대를 구상한다. 대사와 춤은 조화와 해체를 반복하며 무대의 악보가 되고, 음향과 조명, 무대장치와 어우러져 극적인 표현을 한껏 폭발시킨다. 무용수들의 풍부한 표정은 작품의 의미와 표현을 극대화하고, 적재적소에 빛을 발하는 스트로보 조명은 무대 위 해프닝을 영화의 한 장면으로 만들어 낸다. 연극적 요소와 최적의 조화를 이루는 작품 스타일은 그녀가 오늘날 세계 무용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안무가로

꼽히는 이유가 됐다. 현대 예술이지만 난해하지 않고 직설적이며,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마력을 지녔다.

내한 예정인 <검찰관>(2019)은 키드 피벗의 최근작으로, 러시아 소설가 니콜라이 고골의 동명 희곡(1836)을 바탕으로 한다. 어느 작은 마을을 찾아온 하급 관리를 검찰관으로 착각하면서 벌어진 소동을 통해 부패가 만연하던 당시 러시아 관료 사회를 풍자한다. 크리스털 파이트와 오랜 시간 함께 작업한 극작가 조너선 영(Jonathon Young)이 무용에 맞게 대본을 새로 썼고, 키드 피벗의 구성원들이 음악과 무대·의상 디자인을 맡았다. 극작가와 전문 배우들이 녹음한 대사가 내레이션으로 사용된다. 불안정한 사회를 은유하는 불빛 아래 관료주의 냄새를 진하게 풍기는 복장의 무용수들, 여기에 일그러지고 한껏 과장된 표정이 키치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그중 핵심은 가장 클래식하고, 심지어 단조로워 보이기까지 하는 무용수들의 움직임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힘을 실는다는 점이다.

편안한 안락의자에 기댄 채 등 뒤로 관객을 바라보는 검찰관의 표정에 숨겨진 의미가 궁금하다.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정교한 무대 뒤에 안무가는 어떤 섬뜩한 메시지를 감춰두었을까?



무용 <4&9>

진화하는 중국 현대무용의 현재

타오 댄스 시어터 <4&9>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동양의 컨템퍼러리 댄스를 논할 때 가장 먼저 손에 꼽는 곳은 중화권 최초의 현대무용단으로 기록되는 클라우드 게이트 댄스 시어터다. 그러나 1973년 창단 이래 꾸준히 안무작을 발표하며 창립자이자 창작자로 든든한 버팀목이 돼온 린화이민(Lin Hwai-min)이 은퇴를 선언하면서 단체의 위상이 흔들리는 실정이다. 대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를 비롯, 홍콩·일본·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무용 단체가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가운데 중국 현대무용단으로는 처음으로 링컨 센터·테아트르 드 라 빌 등 세계 주요 극장에 초청됐고, 최근 10년간 100개가 넘는 페스티벌 무대를 누빈 타오 댄스 시어터(TAO Dance Theater)의 성장세가 놀랍다.

1985년생의 젊은 안무가 타오 예(Tao Ye)는 중국에서 나고 중화권 현대무용단에서 이력을 쌓다 23세의 나이에 자신의 무용단을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단체를 'TAO Body Theater'라 지칭할 정도로 인간의 기원이 되는 '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매 순간 변화하는 몸이야말로 출생에서 죽음까지 이어지는 인간의 생애와 그에 연결된 자연과 우주의 원리를 가장 잘 표

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타오 예는 2008년 창단 이래 <重3(Weight×3)>(2008), <2>(2011), <4>(2012), <5>(2013), <6>(2014), <7>(2014), <8>(2015), <9>(2017)로 이어지는 '숫자 시리즈'를 꾸준히 발표해 왔다. 이 작품들은 주로 더블 빌 구성으로 공연되는데, 이번 내한 공연에는 2012년 작 <4>와 최근작 <9>를 엮어 무대에 올린다.

유연한 곡선이 특징인 그의 안무에는 동양적 사상이 녹아들어 있다. 특별한 세트도, 장치도 없다. 미니멀리즘을 지향하는 작품 스타일대로 무용수들의 순수한 움직임만이 무대를 채운다. 반복적인 전자음이나 전통악기로 연주하는 간결한 멜로디가 주요한 음악으로 사용되는데, 종종 이러한 음악마저 제거해 무용수의 숨소리까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무채색의, 넉넉하고 둥근 소매와 바짓단은 움직임을 돋보이도록 하는 유일한 장식이다.

타오 댄스 시어터의 한국 공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부산국제무용제에서 <重3>과 <4>, 2016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주년 기념 무대에서 <6>과 <8>을 공연했다. 하나씩 더해가는 숫자처럼 무섭게 진화하고 있는 중국 현대무용의 현재를 만날 수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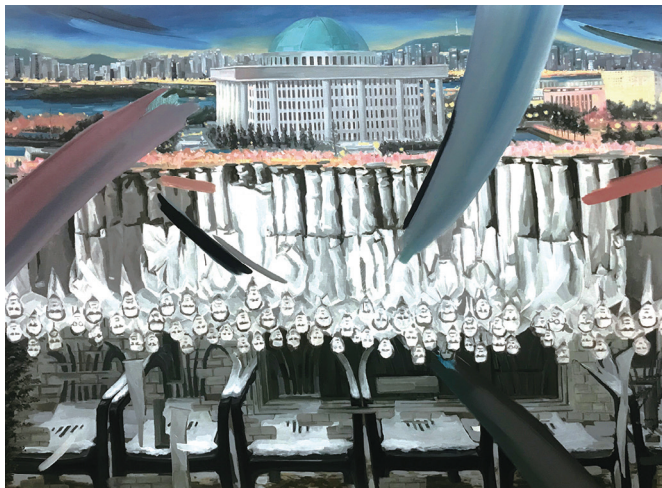
글 김태희_객원 편집위원. 무용평론가 사진 제공 Kidd Pivot, TAO Dance Theater

재해석, 재조명

전시 <새일꾼 1948-2020: 여러분의 대표를 뽑아 국회로 보내시오>와 <류인-파란에서 부활로!>

2020년 4월의 화두는 아무래도 두 가지가 될 것 같다. 하나는 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추이, 또 하나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다. 두 화두에 맞춰 전시를 골라봤다. 첫 번째 전시는 말 그대로 선거를 주제로 한 일민미술관의 <새일꾼 1948-2020: 여러분의 대표를 뽑아 국회로 보내시오>다. 두 번째는 올해 상반기 기대되는 전시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개막이 미뤄진 소마미술관의 '작가 재조명'전 <류인-파란에서 부활로!>다.

※이번 호에 실린 공연·행사 등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양경렬 <Empty spots-Between them>, Oil on linen, 194×260cm, 2020

70여 년 선거 역사 자료와 현대미술의 만남

<새일꾼 1948-2020: 여러분의 대표를 뽑아 국회로 보내시오> |

일민미술관, 신문박물관 전관

일민미술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새일꾼'전은 기존의 선거를 주제로 한 전시와 다르다. 이 전시의 중심 콘텐츠는 선관위 기록보존소에 소장된 300여 점의 선거 사료와 신문 기사 등 자료다. 1948년 5·10 제헌국회의원 선거부터 2020년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73년 선거의 역사가 담겼다.

자료 성격상 박물관에 어울릴 것 같지만, 현대미술관에 오면서 내용도 달라졌다. 시간순으로 구성된 기존의 문법을 깨고, 2020년 한국 사회에 와닿는 주제를 중심으로 사료를 재해석했다. 총 5개 주제가 미술관 각 층에서 펼쳐진다. 순서대로 '애국자가 누구냐' '한 표 찾아 팔도강산' '지금 대단히 〇〇〇 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 24시' '미디어라운지'다.

제목은 다소 난해하지만 실제로 전시를 보면 이해가 된다. 선거 제도가 일상에 가깝다는 것도 이해에 도움이 된다. 우선 첫 도입부에서부터 선거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

1층 전시장 입구에서 '애국자가 누구냐'는 커다란 붉은 글씨가 관객을 맞이한다. 1948년 당시 너도나도 자신이 '애국자'라고 주장한 후보자들의 홍보 자료가 이어진다. 그다음은 2020년의 시민이 생각하는 저마다 다른 의미의 '애국'에 대한 의견이 영상으로 펼쳐진다. 같은 시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천차만별의 의견이 쏟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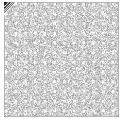
1940년대만 해도 애국이나 독립운동 같은 단순한 지향점이 정치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애국뿐 아니라 교육·복지·주거는 물론 환경·동물권·소수자 인권까지 무수히 다양한 욕망이 펼쳐지는 장이 바로 선거다. 욕망의 각축장인 선거가 70년 넘게 어떻게 좌충우돌하며 다듬어졌는지 잘 구성된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전시 기간에 이어지는 관객 참여 프로그램도 기대가 된다. 소수자 계층을 위한 토론 무대, 전자음악가의 '미래세대 유권자에게 들려주는 노래', 매주 새로운 주제의 '위클리 보트' 등이 열린다. 선거가 멀게 느껴지는 10~20대 관객에게 추천하고 싶다.

요절한 조각가의 뜨거운 작품을 한자리에

<류인-파란에서 부활로!> | 소마미술관 1관 1~5전시실 및 야외 공간

한국의 중견 작가군은 한국 미술사 정립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가장 활발



류인 〈부활-조용한 새벽(Resurrection-Calm Dawn)〉, bronze·iron, 350×130×228cm, 1993

한 연구와 조명이 필요한 집단이다. 그런데 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들은 주로 원로 작가, 해외 작가, 혹은 신진 작가를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2018년 황창배에 이어 조각가 류인을 조명하는 소마미술관의 '작가 재조명'전은 무척 반가운 전시다. 기획 취지나 내용 측면에서, 한국 미술을 제대로 알고 싶은 관객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다.

필자도 전시 개막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전시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글을 쓰고 있다. 4월에는 전시가 열려 부디 관객을 만날 수 있길 바랄 뿐이다.

전시는 류인의 작품과 자료 100여 점을 소개한다. 수년 전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전시가 열린 적이 있지만, 이번 전시는 공공 미술관에서 열리는 회고전이며 그 규모도 크기에 의미가 다르다. 첫 작품인 〈자소상〉(1980)부터 류인 특유의 강렬한 표현이 돋보이는 인체 조각 〈지각의 주〉(1988)와 〈급

행열차-시대의 변〉(1991)을 볼 수 있다. 예술의전당이 소장하고 있는 〈부활-그 정서적 자질〉(1993)도 대형 작품인데, 처음으로 자리를 옮겨 소마미술관에 전시된다. 공모전에서 첫 상을 받게 해준 〈여인입상〉(1983)도 작가가 작고하고 최초로 관객을 만난다.

역동적으로 꿈틀거리면서 팍 막힌 틀을 벗어나려는 인체, 신체의 일부만 강조된 표현들은 오히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의 시대 조건을 반영하고 있어 감동을 준다. 이데올로기적 분열을 벗어나 지극히 개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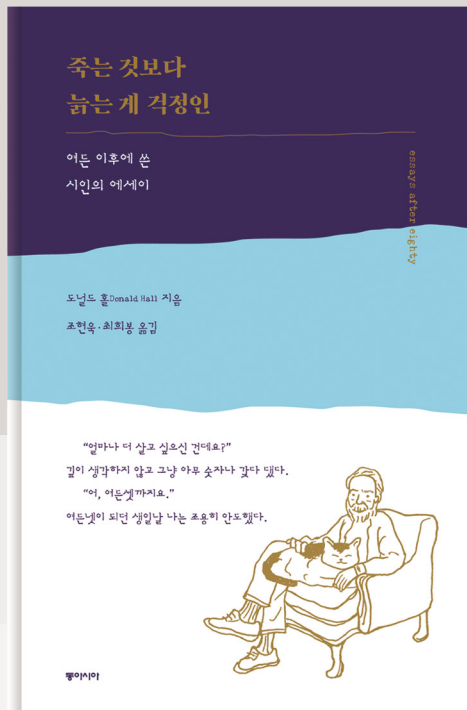
작가는 43세의 나이로 요절했다. 그런데 15년 남짓한 기간에 70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 짧지만 온몸으로 시대를 고스란히 받아내 뜨겁게 불탄 열정을 만나볼 수 있을 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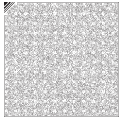
글 김민·동아일보 기자 사진 제공 일민미술관·소마미술관

시인의 황혼녘

책 《죽는 것보다 늙는 게 걱정인》과
《시의 나라에는 매혹의 불꽃들이 산다》

수십 년 온몸으로 문학을 살아낸 시인들의 나라에는 무엇이 살까. 무엇이 남아 그들을 계속 쓰게 했을까. 코로나19가 휘몰아친 '이 시국' 속 미국의 계관시인 도널드 홀(1928~2018)과 등단 51년을 맞는 문정희 시인의 산문집이 나란히 나왔다. 《죽는 것보다 늙는 게 걱정인》(동아시아)과 《시의 나라에는 매혹의 불꽃들이 산다》(민음사)다. 홀은 아흔 살로 타계하기까지 여든이 넘어서도 매일 글 쓰는 일을 거르지 않았으며, 문 시인은 여고생으로는 한국 최초로 시집을 냈던 인물이다. 이들 문학의 원천으로 들어가 본다.





담백하게 늙음을 마주하기

《죽는 것보다 늙는 게 걱정인》 | 도널드 홀 지음, 조현욱·최희봉 옮김 | 동아시아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도널드 홀은 미 의회도서관이 임명하는 ‘계관시인’의 칭호를 얻은 인물이다. 2010년에는 미 정부가 자국 문화 발전에 공헌한 예술가에게 주는 최고 영예인 ‘국가예술훈장’을 받았다. 열두 살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으며 70년 이상 40권이 넘는 책을 출간했다. 그에게는 글이 곧 삶이었다.

《죽는 것보다 늙는 게 걱정인》은 그가 여든이 넘어서 쓴 에세이 14편을 모은 책이다. 오랜 세월을 살아낸 노(老)시인의 인생 통찰이 돋보인다. “서른 살은 겁나는 나이였고 마흔 살이 되던 날은 술을 많이 마신 탓에 눈치채지도 못한 채 지나갔다. 50대가 최고였는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 60대가 되자 50대의 행복이 연장되기 시작했다.”(18쪽) 인생이 10년 단위로 흘러간다고 말한 시인은 60대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마치 다른 우주로 여행을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우주로의 여행과 같은 노년의 삶을 맞이하는 시인의 자세는 ‘유머’와 ‘위트’다. 그에게 늙음은 휠체어를 타고 미술관에 가면 줄을 서지 않아도 되고, 어머니 말씀처럼 같은 탐정소설도 여러 번 읽을 수 있는 이점도 준다.(등장인물 중 누가 범인인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대체로 ‘불편하고 쓸쓸하다’는 걸 밝히는 데도 시인은 거침이 없다. “내 난제는 죽음이지 늙음이다. (...중략...)”어제는 안락의자에 앉은 채 잠이 들었다. 나는 앉아서 잠 드는 사람이 아니다. 매일매일 게으름이 나를 무기력하게 한다.”(198쪽) 늙음은 전에 없던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그럼에도 시인이 의연할 수 있음은 기본적으로 현실 인식이 담백한 덕이다.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는 많은 풀리처상 수상자들이 극빈자 묘소에 안치된다는 사실을 전하며 “우리는 시인이 살아 있을 때 그에게 관심을 갖지만, 보통은 죽음이 그들을 사라지게 한다”고 말한다. “내 불멸성은 아마도 장례식 후 6분이 지나면 소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학은 제로섬게임이다.”(174쪽) 그렇기에 그는 “죽기 전까지 삶은 계속된다”는 명제에도 누구보다 충실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시인은 탄식하고 우울해하는 것보다는 창가에 앉아 새와 헛간과 꽃들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무기력함도 잊게 만드는 창작열이 있었다. 커피를 만들고 알약을 삼키는 일상은 똑같지만, 매일 다른 것을 읽고 쓰면 각기 다른 날이 된다고 그는 고백한다. 시인의 그런 날들 때문에 그가 떠난 지 2년이 지나서도 우리는 그의 글을 더듬는다. 장례식 후 6분이면 불멸성이 소멸한다고 시인은 말했던가. 그는 맞고 또 틀렸다.

시인의 마음속에 아직도 타오르는 불꽃

《시의 나라에는 매혹의 불꽃들이 산다》 | 문정희 지음 | 민음사

도널드 홀의 글이 꺼져가는 불꽃에 가깝다면 문 시인의 글은 활활 타오르는 ‘현재 진행형’ 불꽃이다. 그의 산문집 《시의 나라에는 매혹의 불꽃들이 산다》는 여행기이자 시작 노트다. 시인은 일찍이 미국 뉴욕 유학 생활을 경험했으며, 스웨덴 ‘시카다상’을 비롯한 국제문학상의 수상자이자 14종의 번역서를 펴냈다. 그는 프랑스 낭트부터 중국 홍콩과 난징, 일본 도쿄에서부터 이탈리아 베니스와 이스라엘 텔아비브, 칠레 산티아고와 자메이카 킹스턴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의 문학 행사와 시상식에 초청돼 얻은 국제 감각을 글에 풀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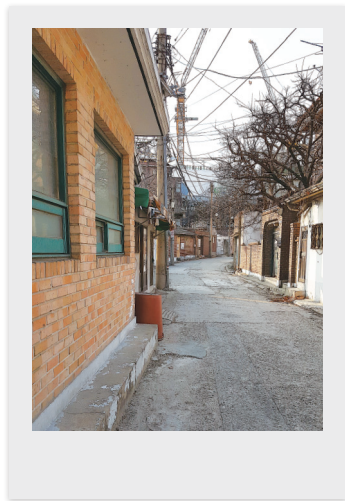
시인은 프랑스 파리의 지하 동굴 바에서 프랑스와 포르투갈,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레바논의 시인을 앞에 두고 모국어로 시를 읊은 경험을 풀어내며 “가난하고 부자인 시인 모두가 나의 에로스”(137쪽)라고 말한다. 베네치아에서 목격한 명품 패션의 허무, 인도 뉴델리에서 느낀 얇은 센티멘털의 위험성 등 타국에서 만난 시인의 시적 사유도 오롯이 담겨 있다.

책에는 19편의 시가 탄생한 배경이 함께 실렸다. 가령 〈고철〉이라는 시는 김수영 시인의 묘소에서 시작됐다. 동료 문인들과 함께 찾았던 묘소에서 시비에 박힌 시인의 얼굴이 웅하니 뿔려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누군가 시인의 얼굴 부분의 동판을 파내 고철값에 팔아먹었다. “뿔린 구멍 속으로/ 자유를 위하여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안다/ 그런 바람이 날고 있었지”(142쪽)

펄펄 끓는 작가 혼으로 나이마져 가능할 수 없던 박경리, 남편 김환기 화백을 떠나보낼 때 “사람의 몸속에 그렇게 많은 눈물이 있는 줄 몰랐다”는 김향안 등 그에게 영감을 준 문화계 인사와의 교류담도 매혹적이다. 그의 시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 까닭을, 절로 짐작하게 하는 글이다.

글 이슬기_서울신문 기자 사진 제공 동아시아·민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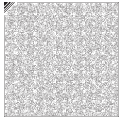
기억은 골목길을 떠나 나이트에 스며들었다



찾길을 벗어난 크고 작은 골목에 집들이 이어져 있던 동네들. 이젠 그런 골목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남아 있다 해도 ‘재개발’로 결국엔 사라질 때를 기다릴 뿐이다. 대부분 그렇다. 요즘도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높고 높은 고층 건물 사이를 걸어 다녀본다. 경계심을 가진 싸늘한 벽과 무관심이 차갑게 느껴진다. 반세기 전일까? 아파트를 닭장이라고 우습게 여길 땐, 아직도 고만고만한 단층집들이 어깨를 겨루듯 붙어 있었다. 골목에서는 창 너머로 기침소리가 들리고 밥 냄새가 퍼지고 부부 싸움이나 아이를 야단치는 어른들의 으름장 놓는 목소리도 들렸다. 다른 사람의 생활이 귀에 들려와도 낯설지 않고 삶의 냄새가 퍼지는 골목은 사뭇 정겨웠다. 어린 날의 골목. 정신없이 놀다가 해가 저서야 아버지의 무서운 불호령이 떠오를 때, 무겁게 골목으로 들어서던 일, 동네의 골목은 사람 몸의 핏줄처럼 이어져 있었다. 성장기 내내 살았던 고향, 양양읍 성내리의 골목길도 오늘 아침에 본 것처럼 눈에 선하다. 길을 사이에 두고 어디엔 누가, 저기엔 누가, 살았던 곳. 생나물 울타리 틈으로 기름내 풍기는 지짐이를 넘겨주던 단실이 어머니. 툭하면 엉엉 울며 따라붙는 동생을 따돌리려고 몸을 바짝 붙였던 담장도 골목에 있었다.

지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살아온 내력을 설명하자니 꼭 짚어야 할 골목길을 묘사하지 않을 수 없다. 1970년대 막바지.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도 생활이 몸에 붙지 않는 옷 같아서 버석거렸다. 왜 나는 ‘돈을 벌어야’ 했는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는지 이해가 안 간다. 재벌의 아내가 됐어도 돈을 벌려 했을 것이라 생각되니, 팔자소관이라고밖엔 말할 수 없다. 소설가였으므로 소설을 써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아이 키운다고 소설은 못 쓰고 다양한 종류의 짧은 산문을 썼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취재를 해야 할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땐 엄마가 오셔서 아이를 봐주셨다. 그 어머니. 당신 말을 빌리자면 평생 다섯 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다고 하는 어머니는 한복 바느질로 돈을 벌고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아이를 집에 데려가서 며칠 있다가 오겠다고, 나에겐 편히 일 좀 하라고 말했다. 아이는



있을 땐 귀찮다가도 눈에 안 보이면 당장 보고 싶어졌다. 엄마는 제 인형 두어 개를 품에 안은 채 불안해하는 아이를 등에 업고 집을 나섰다. 나는 대문에서 그냥 들어가라고 말하는 엄마를, 기억 자로 꺾여 한참이나 야트막한 비탈로 내려가는 골목까지 배웅했다. 엄마는 딸이 홀가분하게 소설 좀 쓰길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골목길을 구부러져 돌아가려는 엄마 등에 업힌 아이가 벌써 보고 싶어졌고 순간 어떤 불길한 예감에 오싹했다.

“엄마!”

나도 모르게 엄마를 향해 달려가며 비명처럼 불렀다. 내 목소리는 날카롭고 매정했을 것 같다. 엄마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그때 엄마의 표정에 나타났던 의아함. 그림 한 장처럼 또렷했다.

“엄마! 연탄가스 조심해!”

내가 소리쳤다. 엄마의 등에 업힌 아이만 빼오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억누르며, 그러나 동시에 엄마의 얼굴에 비친 참혹함, 슬픔과 서러움과 섭섭함이 느껴졌다. 아주 잠깐 침묵하다가 결국 수치심과 참혹함을 지르밟으며 헤어졌다. 등을 돌려 몇 걸음 걷다가 돌아보았다. 엄마가 막 구부러진 골목을 꺾어 가물가물 보이지 않았다. 달려갈까, 엄마 죄송해요, 매달리며 용서를 구해볼까. ‘불효(不孝)’의 쓰라린 죄책감은 엄마가 결코 떨쳐내지 못했을 슬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이것으로 엄마와 나의 인연에 실금이 갔을 게 달았다. 고개를 숙이고 느릿느릿 걸어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내가 여태 단 한 번도 연탄가스가 스미는 방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를 한 적이 없었음을 곱씹었다. 엄마를 내 삶의 소모품처럼 여기는 이 불효가 딸에게 전염될지 모르겠다는 불길한 예감마저 들었다. 또 한 가지.

바로 그 골목에는 앞뒤 사방으로 정이 든 ‘이웃사촌’들이 있었다. 별식을 하면 나눠 먹고, 어느 집에 어려움이 생기면 모여 서서 걱정하곤 했다. 골목에서 나는 ‘늙은 새댁’이었고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할 만머느리였다. 첫딸을 낳았을 때 골목의 여론은 ‘만이는 딸’이 좋다! 거나 만딸은 살림 밀친이라고 했다. 어쨌든 뒤늦게 둘째를 임신했고 골목 여론은 나의 불룩한 배와 허리 모양이 딱 ‘아들’이라는 것이었다. 나도 하루가 멀다 하고 가지가지 고추가 등장하는 꿈을 꾸었다. 풋고추, 붉은 고추, 매달린 고추, 벌에 날아놓은 고추 등등. 여자는 온갖 지병을 산후조리로 고친다는 속설을 믿어 엄마는 이번에 아이 낳고는 몸조리를 잘 하라고 말했다. 나도 그런 결심을 했다. 더 낳지 않을 테니까. 설사 딸이라 해도!

나는 골목의 이웃사촌들이 기대하고 꿈꿔주고 응원하던 아들 대신 딸을 낳고 산후조리로 한 달을 꽉 채웠다. 한 달이 지나자 몸과 얼굴의 부기도 좀 빠지고, 골목의 인심이 그립고 궁금해서 좀이 쑤졌다. 그런 어느 날 새마을 노래가 골목을 향해 점점 크게 울려 퍼졌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라는 노랫말이 청소차의 신호였다. 대부분의 집들이 쓰레기와 연탄재가 담긴 통을 들고 나와 청소차를 기다리곤 했다. 이렇게 차를 기다리는 길지 않은 시간에 골목의 그 장소는 동네 방송국이 됐다. 누가,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어쨌고 등등.

그 방송국의 얼굴들이 그리웠다. 또 딸을 낳았다는 걸 내 입으로 알려주고 싶었다. 입춘은 지났지만 아직 바람이 찼던 그날 아침, 산후 풍을 맞을까 염려해 잘 싸매고 골목으로 나섰다. 딸을 낳았어도 괜찮다고 말해야지, 즐거운 수다가 입안에서 바글거렸다. 그러나 골목길로 발을 내딛는 순간 백여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웃지 않았다. 가까이 가도 침묵은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그랬다.

나중에 알았다. 내가 딸을 낳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내가 아들을 낳아야 하는 머느리라는 걸 알았다. 심지어 아들 못 낳은 만머느리의 삶에 닥칠 불행까지도 예측하면서.

다 옛날이야기다. 요즘 젊은 여성들에겐 괴담(怪談)일 것.

글·사진 이경자_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소설가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알았으면 하는 것

재난의 시기 동안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것들에 대하여



올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이 재난의 시기를 당신이 어떻게 버텨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저런 상황에 휩쓸려가지 않고 하루하루 버틸 수 있게 하는 작고 소중한 것들이 있는지도.

나는 일상을 구성했던 뻘뻘한 것들 사이에 연약한 틈이 보이는 이 시기로 인해, 그 연약한 것들을 더 사랑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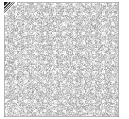
어쩌면 우리에게 그 틈이 전부일지도 모르므로.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중

온 사회를 휩쓸어버리는 사회적인 재난이 도래하면, 가장 먼저 개개인의 삶이 지워진다. 원래 삶이란 저마다 소중한 여기거나 정성을 들이는 각기 다른 부분들로 세밀하게 하루하루 채워지는 것이고, 그런 디테일들이 삶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누군가는 아침에 일어나 강가를 달리고, 누군가는 집에 돌아오는 길의 노천카페에서 맥주 한잔을

마시고, 누군가는 신선한 바람이 부는 저녁 산책을 사랑하며, 누군가는 매일 동네 꽃집에서 꽃 한 송이를 산다. 삶이란 그렇게 저마다 사랑들이 가치를 부여한 일상의 조각들, 사랑하는 세부들로 채워나가면서 이어지고, 그것이 각자의 삶이 되며, 그렇게 쌓인 삶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인 재난은 그 모든 차이를 없애버린 채, 사람들을 단 하나의 공동 운명 속에 통합해 버린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일 나섰던 공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병원균으로 언제 공격 받을지 모르는 위험한 장소가 된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들르곤 했던 카페도 들어서기 조심스러워지고, 때때로 나의 저녁을 지켜주던 가족이나 친구들과 과의 외식도 부담스러운 시간이 된다. 매일 정돈하며 단골손님을 맞이하던 매장도 공허한 장소가 되고, 유지되리라 믿은 매달의 수입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던 지출이나 할부금까지 삶을 위협하는 것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

올해의 시작과 함께 들이닥친 전 사회적인 재난, 병원균이 곳곳에 퍼지면서 극도로 불안해진 일상은 우리네 삶을 대개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었다. 다들 외출 빈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마치 양말이나 신발을 신듯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집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게 새로이 적응하는 모습이 전국 어디서나 비슷하게 자리 잡았다. 물론 그 안에서 해 먹는 요리의 종류나 즐기는 콘텐츠, 저마다 가지고 있는 걱정, 세세한 내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공동의 운명 앞에서 우리가 만들어오던 일상이란 한편으로는 얼마나 연약하면서도 소중한 것이었는지 알게 된 시간이기도 했다. 물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유지되는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이라든지, 멀리서도 계속 안부를 전하는 우정이라든지, 삶을 단단하게 유지해 주던 나의 일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조차 삶을 부드럽고도 잔잔하게, 반짝거리면서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연약한 조미료들'이 없다면 금방 무미건조하고 무겁기만 한 삶의 부담이 될지 모른다. 사랑에는 펜션이나 산책이 필요하고, 우정에는 맥주와 호탕한 웃음이 있어야 하고, 일에도 때로는 커피와 함께하는 공간이나 동료와의 즐거운 시간이 있는 게 역시 더 좋은 것이라고, 그리고 어찌 보면 부수적이라 여겨지는 그런 측면이야말로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했다.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시간

에세이집 《이것이 인간인가(Se questo è un uomo)》는 전 세계적인 재난이자 개인으로서는 더할 것만 같았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계 이탈리아인 프리모 레비(Primo Levi)가 남긴 '수용소에서의 기록'이다. 그는 자신의 일상이 박탈당한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의 처참한 일상을 하나하나 기록해 낸다. 그중 하나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인간의 본성에 따르면 슬픔과 아픔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겪더라도 우리의 의식 속에서 전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원근법에 따라 앞의 것이 크고 뒤의 것이 작다. 이것은 신의 섭리이며, 그래서 우리가 수용소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자유로운 삶에서, 인간이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라는 말을 그토록 자주 듣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삶은 원근법에 의해 지탱된다. 때때로 우리는 삶 전체에 도래한 불안이나 앞으로의 걱정, 사회적인 문제 앞에서, 그것들을 잊는 대신 눈앞의 것에 몰두한다. 내가 보내고 있는 일상이 저 '거대한 인생' 혹은 '거대한 세상'이라는 관념을 막아준다. 우리가 만들어온, 그리고 만들어갈 하루하루의 세부들은 가까이 있기에 커 보이고, 전적이며, 그것들이 우리 삶을 이뤄낸다. 지옥의 수용소라는 아우슈비츠에서 레비는 나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견딘 것이 아니라, 그날을 연명할 수 있게 하는 끼니, 바로 결의, 우정, 별것 아닌 노래들로 오직 '하루하루'를 살아낸다. 재난 속에서 우리는 먼 미래를 잃고, 대신 눈앞의 것들을 더 거대하게 만나며 일상을 버텨낸다.

그렇게 보면 재난은 도래했고 우리가 사랑한 일상이라는 것도 뒤를리고 멀어졌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일상이 생긴 셈이다. 그 이전에는 온전히 마주하지 않던 가족의 표정과 몸짓을 더 자주, 분명하게 바라보게 됐다. 홀로 있는 시간이 무서워서 도망치던 나날 대신, 온전히 나를 보듬고 매만져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다. 테이크아웃 커피를 좋아하느라 몰랐던, 손수 내려 마시는 핸드 드립의 커피 맛을 알게 되기도 하고, 집에서 만들어 먹는 감바스란 어떤 것인지, 홀로 글을 쓰는 기쁨이란 무엇인지, 아이가 더 좋아하는 몸짓과 놀이가 무엇인지 더 가깝고도 깊게 알아간다. 많은 것이 달라졌고 많은 걱정과 불안 앞에 서게 됐지만, 그것이 불행하지만은 않은 이유는 여전히 내가 채워낼 수 있는 하루가 여기, 가장 거대한 크기와 질감으로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레비가 남긴 다음과 같은 말이 유독 더 깊이 다가온다.

“누구나 인생을 얼마쯤 살다 보면 완벽한 행복이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그것과 정반대되는 측면을 깊이 생각해 보는 사람은 드물다. 즉 완벽한 불행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글 정지우_문화평론가.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저자

역사적 길목에서 ‘시민이 지킨 공원’

내게로 오는 공원 ❶ 통의동 마을마당



서울에는 몇 개의 공원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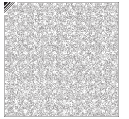
놀랍게도 2,319개(2018년 1월 기준)의 공원이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경복궁 서편 영추문을 마주하고 있는 ‘통의동 마을마당’은 1997년 서울시가 만든 공원으로, 청와대와 가까운 탓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공원은 늘 그곳에 있을 것 같지만 모든 공원이 그렇지 않다.

통의동 마을마당은 주민이 힘을 모아 가까스로 지켜낸 공원이다.



통의동 마을마당을 지켜내기 위한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촛불 공원 행사



시민이 주인인 도시의 공간, 공원

공원은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을까? 도시 전체를 놓고 인구 밀도, 주변 현황 등을 고려해 가면서 거시적으로 위치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집 바로 옆’ 같은 아주 소박한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내 대답은 간단하다. ‘누구나 건물을 짓고 싶어 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그곳은 사람들의 왕래도 꽤 있고, 주변에 가볼 만한 곳도 있고, 매력적인 장소일 것이다. ‘공원이 들어서기에는 너무 비싼 조건이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겠다. 공원이란 그렇다. 특히 도시의 공원이란, 원래 이렇게 비싼 것이다.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서 헬싱키의 에스플라나디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다.

광화문에서 경복궁 서쪽 돌담을 끼고 청와대 쪽으로 올라가는 효자로는 아마도 서울에서 은행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길일 것이다. 화강석이 깔린 길을 따라 올라가면 경복궁 서문인 영추문이 나온다. 그 바로 맞은편, 어딘가 1970년대의 분위기가 나는 동네에 손바닥만한 작은 공원이 있다. 지금 한창 재조성 공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래는 표지판 하나 없이 커다란 느티나무 하나, 작은 정자 하나, 벤치 몇 개, 약간의 운동시설이 전부였다. 사람들은 이곳을 ‘통의동 마을마당’이라고 한다. 소박하기 짝이 없는 이름이다.

이 조용하고 작은 공원이 시민과 공권력이 두 번이나 충돌한, 그리고 결국 시민이 두 번 모두 승리를 거둔 치열한 격전지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두 번 모두 인근의 청와대와 관련이 있다. 한 번은 청와대를 지키기 위한 경호 시설이 들어올 뻔했고, 그다음에는 청와대가 아예 이 땅을 민간인 개발업자에게 넘겨버렸다. 게다가 하필 그 무렵 청와대는 소위 국정농단 사건과 이를 규탄하는 촛불 정국의 한복판에서 서서히 가라앉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행정의 관성력 때문이었을까, 그 혼란의 와중에도 청와대는 매각 절차를 완료했고, 그러고는 완전히 침몰해 버렸다.

문제를 만든 당사자는 사라지고 개발업자, 그리고 이 공원을 구하고자 모인 ‘공사모(공원을 사랑하는 시민 모임)’라는 한 무리의 시민들이 서로를 엉겨주춤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서울시가 구원투수로 나서 이 모든 과정을 다시 뒤집었다. 그전에 이렇다 할 법적 지위조차 없던 이 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지정됐고, 온갖 진통 끝에 재매입을 위한 예산의 확보와 승인이 이루어졌다. 소유자와의 협상이 이어지고, 그래서 서울시가 다시 이 공원의

소유자가 된 것은 상황이 발생한 지 2년 하고도 몇 달이 지난 후였다. 애초에 20년 전인 1997년, 서울시가 만든 공원이었다.

역사적 순간을 함께한 공원, ‘시민의 마당’이 되다

경복궁 옆이니 땅의 역사가 만만치 않다. 조선 시대에는 이 일대에 ‘대루원’, 즉 대소 신료들이 아침에 영추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건물, 그리고 천문을 관측하던 관상감 등이 있었다. 정철의 <관동별곡>에 영추문의 옛 이름인 ‘연추문’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 또한 이 앞을 오갔으리라. 고종 연간에는 매동소학교가 이 일대에 자리 잡았다. 일제강점기에 학교가 지금의 사직공원 옆으로 이사한 후, 그 부지는 여러 개로 쪼개졌고 그중 하나가 지금의 통의동 마을마당 터가 됐다. 이후 경기도지사 관사 한옥이 지어졌다가 민간에게 불하됐는데, 이를 매입해 집과 사무실로 사용한 이는 일제강점기에 한옥과 서양식 건물 모두를 다루었던 개성 출신의 시공업자 마중유였다.

이 집 앞 효자로는 ‘대한민국’ 시대에 들어 지속적으로 시민과 공권력이 충돌하는 장소가 됐다. 4·19 혁명 당시 서울시내 사상자의 대부분이 이 길에서 발생했고, 5·16 군사정변 때는 탱크의 진동으로 길가의 집들이 흔들렸다. 이러한 대결의 전통은 공원의 소유권이 민간에게 넘어간 2016년 말과 2017년 초의 촛불 정국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잠잠해졌지만 이제 시위는 이 동네의 일상적인 풍경이다.

여전히 위치로는 이만한 곳이 없다. 이른바 역세권이라 교통도 편하고, 바로 길 건너에는 경복궁이 있으며, 배후의 동네는 서울에서도 가장 핫하다는 서촌이다. 당연히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기관과 사람들이 이곳을 노려왔다. 그간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여전히 시민을 위한 공공의 장소로 남아 있게 된 것은 차라리 기적이고, 나아가 우리 사회 모두의 승리다. 일부러 찾아가는 공원이 아니라 내게로 오는 공원, 모두가 힘들게 지켜낸 소중한 곳, 그것이 바로 통의동 마을마당인 것이다. 이제 봄이 되면, 재조성 공사를 마치고 다시 말끔한 모습으로 시민을 맞이한다. 20년이 넘어 이제 거목으로 성장한 느티나무가 여전히 넉넉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야깃거리가 많은 공원은 또 없다. 봄날의 한가로운 나들이 길에 들르기 딱 좋은 곳이 아닐까.

글·사진 황두진_건축가. 황두진건축사사무소 대표

잃어버린 시절에 대한 쓸쓸한 유언

장국영 추모 에세이



“발 없는 새가 살았다. 이 새는 나는 것 외에는 알지 못했다. 새는 날다가 지치면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잠이 들었다.

이 새가 땅에 몸이 닿은 날은 생애에 단 하루, 그 새가 죽는 날이다.” -영화 <아비정전> 중 내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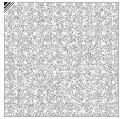
2003년 4월 1일. 장국영이 죽었다.

세상이 중력처럼 무거웠던지, <아비정전>에서 이야기하던 ‘발 없는 새’처럼 그는 땅 위로 몸을 내려놓았다.

처음엔 지독한 농담인 줄 알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이상한 슬픔에 사로잡혔다.

마치 오랜 친구가, 믿었던 형이, 닮고 싶었던 영웅이 사라진 것 같았다.





홍콩영화의 추억

1980년대를 관통하는 청소년기를 보낸 나는 겁도 없고 의식도 없었다. 괴괴한 시간 속, 그 시절이 얼마나 고약하고 잔인했는지 알지도 못했다. 주말 내내 TV에서 중계하는 프로야구를 보았고, 친구들과 몰래 찾은 번두리 재개봉관에서 비슷하면서도 다른 성인영화들을 찾아다녔다. 그저 그거면 될 것 같았다.

그러다 친구들과 <영웅본색>이라는 영화를 만났다. 개봉 당시 흥행에 실패한 이 영화는 딱히 갈 곳도, 쉴 곳도 없는 아이들의 아지트였던 재개봉관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재상영과 재관람 열풍으로 이어졌고, 한국 최초의 컬트영화가 됐다. 바바리코트와 삐딱하게 입에 문 성냥개비, 지폐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멋쟁이 형님 주윤발은 그 시대 우리의 영웅이며 하나의 지향점이었다.

<영웅본색>을 필두로 이른바 ‘홍콩 누아르’라 불리는 마피아 영화의 득세는 도무지 둘러봐도 영웅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하고 위장된 한국 사회의 현실과 맞아떨어졌다. 의리로 목숨까지 바치는 형님들의 모습은 어쩌나 멋있던지. 또 <첩혈쌍웅>의 쌍권총 신과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충격 장면은 얼마나 황홀했던지.

장국영과 왕조현의 애처로운 로맨스 <천녀유혼> 시리즈는 소녀들을 극장으로 불러 모았고, 양자경의 <예스 마담> 시리즈도 여성 액션 영화의 통쾌함을 안겨주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마피아 자본으로 굴러가던 영화 시장은 당연히 싸구려 아류작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 비슷한 영화들의 각축장이 됐다. 형님들의 의리를 그리던 홍콩 누아르는 청바지와 오토바이로 기억되는 유덕화의 <열혈남아>와 청순가련한 이미지의 대명사가 된 오천련의 <천장지구>로 자리를 옮겨 갔다가, 신드롬을 일으킨 <지존무상>과 도박 영화에 발 빠르게 편승한 왕정과 주성치의 코미디물 <도성> 시리즈를 끝으로 퇴락하기 시작했다.

기억 상실, 시대의 몰락

홍콩 반환을 앞두고 홍콩 젊은이들이 느낀 정체성의 혼란과 상실감, 우울한 기류를 가장 먼저 포착해낸 왕가위 감독의 1990년 작 <아비정전>은 극장 개봉 당시 너무나 재미없다며 환불 소동을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발 없는 새’ 같은 삶을 허무한 표정에 실어 감각적이면서

도 나른하게 그려낸 이 영화를 둘러싼 소동은 그동안 우리가 홍콩 영화에 대해 얼마나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방증이었다. 왕가위의 등장과 함께 1980년대를 주름잡던 홍콩 누아르도 스르륵 사라졌다.

서극 감독과 임청하가 <동방불패>로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홍콩 영화는 무협 장르로 부활했다. 아름답지만 눈에 띄는 역할을 맡아본 적이 없는 30대 후반의 임청하는 메트로 섹슈얼적 이미지로 남녀 모두를 사로잡았다. 하지만 발 빠르고 파급력이 큰 홍콩영화계는 다시 수많은 아류를 재생산하면서 일순간에 무협영화의 불씨를 꺼뜨리는 수순을 밟았다.

1990년대, IMF 외환 위기를 거쳐 사상 초유의 불경기를 맞은 우리 세대는 요상하게 과거에 집착하는 시간을 살았다. 힘든 현실을 위안하는 방법으로 세상이 복고를 개척했기 때문이다. 달짝지근한 과거는 마치 구름처럼 폭신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제법 뛰어들기 좋아 보였다. 게다가 기대에 비해 딱히 달라지지 않은 21세기의 시간은 미래보다 과거에 가까웠다.

그렇게 1980년대의 생생하고 아팠던 시대를 낭만과 복고의 기억 상실로 속여 살던 어느 날, 장국영이 죽었다 했다. 2003년 당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문에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 스타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가면 쓴 것처럼 보였다. 얼굴을 가린 홍콩 최고 배우들 사이에서 치러진 장국영의 장례식은 잃어버린 시절에 대한 묵도이며 동시에 쓸쓸한 유언 같아 보였다. 나의 80년대가 송두리째 찢어져버린 것 같았다. 덜 자란 시간을 응원해 주던 영웅을 털어내면서 끊어진 시간들이 영성한 매듭으로 남았다. 그래서 4월이 되면, 장국영이 생각나면, 문득 잘 이어지지 않은 그 시절이 아려 슬퍼진다.

장국영 | 1956~2003

1980~90년대 홍콩영화 전성기를 상징하는 대표 배우 겸 가수. 젊은 나이에 죽음 선택해 영화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대표작으로 <영웅본색> <천녀유혼> <아비정전> <패왕별희> <해피 투게더> <동사서독> <이도공간> 등이 있다.

글 최재훈_영화감독이 만들어낸 영상 언어를 지면 위에 또박또박 풀어내는 일이 가장 행복한 영화평론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각종 매체에 영화평론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결제수수료 0%, 소득공제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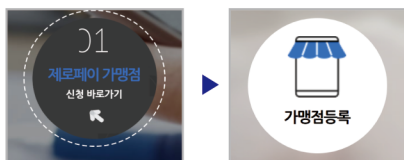
간편하다!

제로페이 서울

PC·스마트폰으로 가맹점 신청도 간편하게!

1 제로페이 홈페이지 검색

zeropay.or.kr



※ 유사 사이트(zeropay.co.kr) 주의

2 회원가입

'가맹점 등록 확인' 조회 ▶ '신규 가맹점 등록 신청'

3 사업자 정보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완료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입력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업로드

소비자는 QR코드로 결제도 손쉽게!

1 제로페이 참여 사업자의 결제 앱 설치

·설치 후, 결제계좌 등록
·이미 설치된 사용자는 기존 앱 사용



2 간편결제 앱에서 가맹점 QR코드 촬영

3 결제 금액 및 비밀번호 입력확인



소상공인 돕고!
소득공제 받고! **제로페이서울**
※ 가맹점 신청: zeropay.or.kr





WEBZine⁺



주머니 속 문학잡지 [비유]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책장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웹진에서 만나보세요!

view.sfac.or.kr



연극 전문 웹진 [연극in]은 연극을 다양한 감각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현장과 무대, 공연하는 예술가를 관객과 매개합니다.

webzine.e-stc.or.kr



[춤:in]은 무용 전문 웹진으로 정보와 이슈를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무용계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choomin.sfac.or.kr



죽음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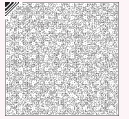
〈쓰다〉27호 포스터



〈쓰다〉6호 포스터

사람은 자신이 가장 치열하게 감당했던 감정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다. 우리는 어떤 시절에 느낀 감정을 끝내 떨치지 못한 채, 그것과 긴 시간을 함께하고, 함께한 만큼 오래 싸우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그 감정에 깊이 정드는 게 아닐까. 기쁨보다는 슬픔이, 기대보다는 체념이 아무래도 떨치기 어려운 감정이라서 사람들은 비극을 사랑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비극적 감정이 우리를 마냥 우울하게 만들거나 고립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내 생각에, 치열하고 깊은 감정은 보다 넓은 상상력과 공감 능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가령, 죽음에 관해 상상하는 일, 죽음을 맞이한 자의 슬픔을 떠올리는 일, 나의 죽음 이후에도 이어질 세상을 생각해 보는 일을 슬픔이나 체념 같은 감정 없이 해내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때로 감정은 상상력의 테두리가 돼준다. 장승리 시인의 시를 읽으며 오래전 읽었던 금해랑 시인의 동시를 떠올리게 된 것은, 두 시인이 자기 감정을 죽음이라는 사건 가까이 밀어보는 방식이 똑같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슬픔이 묻는다/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새가 답한다/네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슬픔이 묻는다/그곳도 하늘인가요

장승리 <하늘> 전문

어떤 사람은 기쁨, 행복,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너무나 익숙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가 놓인 상황을 동일시하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 생이 우연한 축복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를 것이고, 그래서 죽음처럼 끔찍하고 싸늘한 사건 같은 건 영 남의 일처럼만 여길 것이다. 하지만 장승리 시인에게는 슬픔이 없는 세계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만큼 그는 슬픔과 매번 너무나도 가깝다.

이처럼 슬픔과 가까이 지내는 자는 슬픔을 상상하는 능력도, 그 슬픔이 초래하는 죽음과 같은 상태를 그려보는 능력도 탁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자기 슬픔을 어떤 익숙한 물건처럼 자기 바깥으로 꺼내어 보기도 하고, 그것의 비극성을 죽음과 견주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시는 새에게 슬픔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정작 새의 대답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질문 자체다. 슬픔이 보이지 않는 그곳이 과연 하늘인가? 슬픔 없는 하늘과 같은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시인에게는 그럴 리가 없다. 저 ‘하늘’ 너머가 의미하는 바가 죽음이건 천국이건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은 슬픔 없이 존재하지 못한다.

안에 들어가면 좋아유?/아즉 못 들어가 뵈구먼유/날 좋으은 돈 벌어야 허고/날 곳으은 청소허고 빨래허야 허니께/여그서 10년 넘게 장사했어도/창덕궁 대문허고 기왓장이나 뵈지/아즉 못 들어가 뵈구먼유/꽃도 이쁘고 궁도 이쁘다구유?/구중궁궐 안에는/꽃피는 봄이 있겠지유/다음 생에는 꽃귀경 힐 수 있을랑가/에고, 봄도 꽃도 미련 읍구먼유/이 생에 죄 안 지었응게/다음 생은 없겠지유

금해랑 <창덕궁의 봄> 전문

너무나도 고단한 삶을 중단시킬 수 있는 건 때로 죽음뿐이다. 결코 다음 생을 바라지 않는 저 화자의 마음을 나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창덕궁 문턱 하나만 넘으면 가능한 꽃구경조차 후생으로 미뤄야 할 만큼 극한 가난에 시달리는 저이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을 것이라 짐작할 뿐이다. 이 노년의 노동자에게 가장 익숙한 감정은 체념일까? 화자는 담 너머에서 꽃이 피고 지듯, ‘꽃귀경’은 이 생의 너머에 있다고 가정해 버린다. 그러면서도 다음 생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고단한 생활이 먼 미래를 넘어 죽음 바깥의 가능성까지 달아버린 것이다.

그러나 장승리 시인의 슬픔도 금해랑 시인의 체념도 떨쳐야 할, 이겨내야 할, 품지 말아야 할 무엇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사람은 슬픔과 체념 속에서도 삶을 이어간다. 그럼에도 어떤 감정은 우리를 지나간 이후에도 우리 삶과 태도에 끝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두 시인의 어떤 슬픔과 체념이 생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만들어냈는지 말이다.

글 김잔디_웹진 [비유] 편집자 사진 제공 웹진 [비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은 문제도 아니지

〈판소리 햄릿-송보라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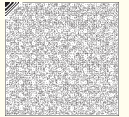


3월 6일부터 8일까지 연우소극장에서 공연한 〈판소리 햄릿-송보라 편〉

연극을 보러 나선 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대학로의 여러 극장은 어둠 속에 외롭게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판소리 햄릿-송보라 편〉은 그러한 시점에 불을 켜고 관객을 맞이한, 몇 안되는 공연 중 하나였다. 극장가 전반에 찾아든 유례 없는 고요함, 마스크를 쓰고 눈동자와 눈동자를 마주치며 모여 앉은 관객들, 연우소극장에 강하게 퍼지는 소독제 내음 속에서, '이 시대에 공연예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햄릿은 외롭지 않다

공연의 부제처럼, 이 공연은 '햄릿의, 햄릿에 의한, 햄릿을 위한' 햄릿이다. 소리꾼 1인이 극을 전개하는 판소리의 특성을 살려 인물의 내면 심리를 뚜렷하게 무대 위에 펼쳐 보인다. 소리꾼 송보라는 극을 관통하는 시선, 그러니까 햄릿의 시선과 입장을 일관성 있게 창조한다. 그는 관객을 이끌고, 타오르는 의심으로 새까매진 햄릿의 은밀하고 따가운 목구멍 속에서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절절히 끊어지는 그의 창자 속까지, 말 그대로 휘젓고 다닌다. 극이 전개되면서, 관객과 햄릿은 마스크 한 장 비집고 낄 틈도 없을 정도로 가까워지는데,



햄릿에게 마음을 활짝 연 관객들은 그의 선택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소리꾼은 거트루드·폴로니어스·클로디어스 등 주요 인물들을 넘나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햄릿의 내면을 선명하고 투명하게 펼쳐내는 것에 주력한다. 원전에서 그토록 비밀스럽던 햄릿의 의도들이 얼마나 시원스럽게 선택되고 표현되는지 가려운 곳이 글썽 속이 다 시원할 정도다.

이 지점에서 송보라의 〈판소리 햄릿-송보라 편〉은 원전과 차별화된다. 우리가 알고 있던 햄릿은 누구였던가? 5막까지 헛발질만 하는 자였다. 얼마나 징징대면서 질질 끄는지, 4막쯤 넘어갈 지점에는 ‘재 도대체 왜 저러니’ 하고 고개가 좌우로 저어질 만큼, 질리도록 수많은 독백, 도망, 망설임, 엄한 사람들의 죽음을 쏟아내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마침내’ 행위하는 자였다. 그런데 이에 비하면 송보라의 햄릿은 얼마나 당당하고 앙칼진가! “근데 말여, 사실 내가 뭐 꼭 왕이 되고 싶었던 건 아녀 궁계 내 인생의 목표가 왕은 아니었다는 거지.”라든지, “나는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오피리어한테 미안했다. 오빠가 그때는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랬지만 내 사랑은 너 뿐이다 이래갖고 할라 그랬는디-”라든지. 송보라의 햄릿은 자기 마음을 잘 알고 있고, 그만큼 행위의 선택도 깔끔하다.

생각해 보니 셰익스피어 햄릿에게 없는 것이 송보라 햄릿에게는 있다. 바로 ‘고수’다. 그는 쓴소리를 하더라도 완벽히 햄릿의 편이다. 햄릿이 자신의 심리를 발견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 목소리를 낸다. 그렇다고 고수가 별다른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하는 일은 오직 소리꾼과 대화하는 것, 그것뿐이다. 대화가 있다면, 누군가와 얘기를 할 수만 있다면, 햄릿은 더는 우유부단한 미완성의 왕자가 아니다. 송보라가 표현한 햄릿은 자신의 전략과 심리를 잘 구성해 목표를 이루는 영웅이다. 영웅은 고수가 있기에 외롭지 않다.

‘코로나 시대’의 햄릿

그렇게 막이 내렸다. 원전 햄릿의 우유부단함, 미숙함, 애매모호함이 표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나? 물론 그렇다. 사실 언제나 햄릿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우유부단한 심장과 나의 심장이 닮아서일 것이다. 행동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확인이 필요했던 햄릿의 가여운 주저함을 늘 내 모습과 일치시켜 왔었다. 그렇기에 원전 햄릿에게 깊은 애정과 친밀함이 있었다. 그런데 소리꾼 송보라가 표현한 선명한 햄릿은 우유부단함 대신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말해 주었다. 그 무엇인가가 내 희미한 박동의 심장에 어떤 힘의 흔적을 남겼다.

하나둘 불이 꺼지는 극장 속에서, 소리꾼 송보라는 ‘내 옆에 입을 가진 누군가 있다는 것’, ‘대화할 수 있다는 것’ 단순히 그것만으로 햄릿이 원전과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줬다. 막막함과 단절 속에서, 만남에 대한 불안감과 관계에 대한 초조한 감정이 불쑥불쑥 고개를 드는 오늘날의 어둠 속에서, 송보라의 햄릿은 질문하고, 대답하고, 다시 질문을 던지는 가장 인간적인 행위가 인간의 얼굴과 삶을 또렷하게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바로 판소리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다.

글 안정민·극작가·연출가. 연극이 들리지 않던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곳, 보이지 않던 세계를 보이게 하는 장소라고 믿고 있다. 현재 창작집단 푸른수염의 대표를 맡고 있다. 〈사랑연습-갈비뼈타령〉 〈뜻밖해〉 〈고독한 목욕〉 〈이방인의 만찬-난민연습〉 외 다수의 연극을 극작, 연출했다.
사진 제공 플레이위드

Q 당신은 누구입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저를 현대무용을 하는, 춤을 추는 국은미라고 소개해 왔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저는 두 아이를 둔 엄마이기도 하고, 안무가이기도 하고, 무용수이기도 해요. 우리의 신체 부위가 어깨, 팔꿈치, 무릎 등 각자의 이름이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나를 구성하듯, 어떻게 볼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잇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죠. 신체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도 움직임이고 관계 또한 움직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움직임으로 삶을 관통해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움직임을 통해 삶을 보고, 삶에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저를 가장 설명할 수 있는 말인 것 같네요.(웃음)

Q 여기는 어디입니까?

요즘 사람들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치유라는 말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무용을 하고 몸을 움직이며 경험한 바로는, 몸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움직임으로부터 저절로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이 공간은 제가 생각하는 움직임의 가능성을 연구하고 수업의 형태로 사람들과 나누는 곳이에요.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움직임과 몸이 화두인 만큼 여러 각도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즉, 움직임을 연구하고 움직임의 가능성을 계속 끌어낼 수 있는 놀이터죠.(웃음)

Q 여기에서 춤은 어떻게 발견되나요?

제가 공부하는 방법론인 ‘펠덴크라이스(Feldenkrais)’는 느긋하고 여유로운 상태여야만 그 안에 있는 작은 차이를 알아차릴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경직돼 있고 무언가를 이겨내야 한다는 의지가 앞섰을 때는 불가능하죠. 그 차이를 구별해 내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알아보고 여유 있게 머무를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이곳은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없고, 누군가 한계를 설정하는 곳도 아닌, 계속 움직임의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요.

Q 지금 하고 계시는 ‘Project365’는 어떤 작업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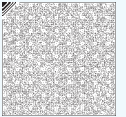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정말 단순해요. 최근에 새 휴대폰으로 바꾸게 됐는데, 이 기계에 적응하기 위해선 그걸로 하고 싶은 게 생겨야 하니까, 일단 영상을 찍어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휴대폰으로 춤추는 영상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한번 올려봤어요. 그렇게 Project365의 첫 게시물이 올라갔는데, 와! 재미있었어요.(웃음) 그렇게 매일 일기 쓰듯이 춤을 추고, 이를 올리게 된 거죠. 그런데 올리기 시작한 이후, 몇 주 동안은 무대에 선 듯한 느낌이 들어서 미묘했어요. 결국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게 되면 지속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일기 쓰듯이 올리기로 했어요.(웃음) 하루에 한 번 올리는 것 외에는 규칙이 따로 없어요. 시간이 쌓이면서 어느 공간에 있어도 이야기가 만들어질 거라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감각들은 매일 끊임없이 축적되고 있는 거죠, 조금씩 매일.(웃음)

취재·정리 김연임_웹진 [춤:in] 편집장

아티스트 소개 안무가 국은미는 이화여대, NYU Tisch 대학원을 졸업했다. 2001년부터 국내 활동을 시작하며 움직임에 천착하는 안무가의 한 명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최근 10여 년간은 소매틱(신체의 자각 능력을 향상시켜 몸과 마음의 유기적 연결을 돕는 기법)적 접근법을 통해, 무용수의 자발성과 표현력을 극대화 해 그것을 공연화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춤:i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춤+여기

움직임을 통해 삶을, 삶을 통해 움직임을 보다

국은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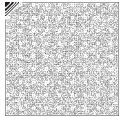
©Kenn. 김병구

04

SFAC
문화예술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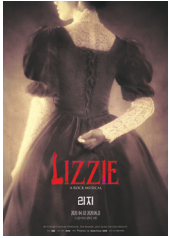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금천예술공장
- 남산예술센터
- 대학로연습실
- 문래예술공장
- 삼일로창고극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예술치유허브
- 시민청·시청 | 삼각산시민청
- 신당창작아케이드
- 연희문화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청년예술청
- SFAC 축제 | 예술교육 |
지원 및 협력
- 기타 문화행사

Mon	Tue	Wed
		1 ● 전시 <2020 금호영아티스트>(~5.5)
6	7 ● 연극 <테스트랩>(~6.21) ● 연극 <언체인>(~6.21)	8 ● 전시 <경계의 예술, 타투>(~4.8)
13	14 ● 뮤지컬 <차미>(~7.5)	15
20	21 ● 제20회 서울국제즉흥춤축제(~4.26) ● 뮤지컬 <글래디에이터>(~6.28)	22
27	28 ●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5.17) ● Beethoven in Love	29 



Thu	Fri	Sat	Sun
2 ● 뮤지컬 <리지>(~6.21)	3 ● 제29회 신춘문예 단막극전(~4.5) ● 탈춤극 <오셀로와 이아고>(~4.5)	4 ● 전시 <라자스탄의 우물>(~4.4) ● 오페라농극2020 <라트라비아타> ● 제10회 일우사진상 수상자 권도연 개인전 <사뭇(Siot)>(~4.4) ● 연극 <아빠 얼굴 예쁘네요>(~4.19)	5 ● 극장전 <분장실>×<분장실청소>(~4.5) ● 전시 <얼굴을 기다리며>(~4.5) ● 연극 <동시대인>(~4.5) ● 전시 <학교재 소장품, 21.2세기>(~4.5)
9 ● 2020 예술감독신작 무용수 공개오디션(~4.9)	10 ● 연극 <조치원 해문이>(~4.19)	11 ● 2020 양상불콘서트I ● 연극 <리어외전>(~4.19)	12
16 ● 국립극단 70주년 기념 레퍼토리 <만선>(~5.2)	17 ● 2020 금천예술공장 11기 국외 입주작가(A팀_mariah Blue) 성과공유전시(~4.24)	18 ● 잠실창작스튜디오 2020 프로젝트A 일일미술멘토링 이벤트	19
23	24 ● 다이나믹 클래식 Masterpiece Serie I	25 ● 2020서울시향실내악II ● 전시 <추니박, 침묵의 숲> ● 전시 <뜻밖의 발견, 세렌디피티>	26
30 ● 어린이 뮤지컬 <우리는 친구다>(~6.21) ● 최유진 플루트 독주회			

※이번 호에 실린 공연·행사 등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뮤지컬 <리지>

그동안 책·연극·드라마·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된, 1892년 미국에서 일어난 미제 살인 사건 '리지 보든 사건'을 모티브로 한 뮤지컬 <리지>가 아시아 초연 무대로 국내에서 막을 올린다. 4인의 여성 캐릭터와 6인조 록밴드의 연주로 스타일리시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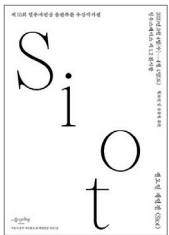
일시 4월 2일(목)~6월 21일(일)
평일 오후 8시 | 토 오후 3시·7시
일·공휴일 오후 2시·6시(월 공연 없음)
장소 드림아트센터 1관 에스비타운
관람료 R석 6만 6천 원, S석 5만 5천 원
문의 02-3485-8700



전시 <라자스탄의 우물>

강경구·김성호·김을·안창홍, 60대 작가 네 명이 올해 초 인도로 여행을 떠났다. 인도의 자이푸르, 조드푸르, 자이살메르를 지나 타르 사막에 들어가는 보름 남짓한 여정 동안 느끼고 겪은 순간을 기록한 드로잉이 여행과 스케치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기간 ~4월 4일(토) 오후 12시~6시(매주 월 휴관)
장소 통의동 보안여관 아트 스페이스 1
관람료 무료
문의 02-720-8409



전시 <시옷(Siot)>

사진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일우사진상' 출판 부문에서 수상한 권도연 작가의 개인전이다. 일우스페이스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고고학' '섬광 기억' 등 물질과 기억의 관계를 다루는 작업뿐 아니라 북한산 들개를 포착한 '북한산' 시리즈를 함께 선보인다.

일시 ~4월 4일(토)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30분
토 오후 1시~6시 30분 | 일 오후 1시 30분~6시 30분
(월·공휴일 휴관)
장소 일우스페이스 제1,2 전시장
관람료 무료
문의 02-753-6502



탈춤극 <오셀로와 이아고>

쇼케이스 당시 탈춤과 고전의 만남이라는 형식과 높은 완성도로 주목 받은 천하제일탈공작소의 작품이다.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극은 오셀로와 데스데모나의 굳건한 사랑이 가벼운 이아고의 말로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탈춤으로 풀어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9~2020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사업 선정작이다.

일시 4월 3일(금)~5일(일)
금 오후 8시 | 토 오후 3시·7시 30분 | 일 오후 3시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2-3668-0007



전시 <학고재 소장품, 21.2세기>

학고재갤러리가 소장한 백남준·정상화·김현식·안토니 고티·줄리안 오피 등 국내의 유명 작가의 작품 26점을 공개한다. 회화·조각·영상·드로잉·콜라주·판화까지 다양하다. 백남준이 1974년 독일 쾰른시립미술관에서 직접 법의를 입고 TV 앞에 앉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한 'TV 부처'도 전시돼 있다.

일시 ~4월 5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 휴관)
장소 학고재갤러리 신관
관람료 무료
문의 02-720-1524



연극 <데스트랩>

한때는 유명했으나 계속되는 실패로 실의에 빠져 아내와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극작가 시드니 브뤼. 그는 자신의 제자 클리포드 앤더슨이 보낸 극본을 받게 된다. 너무나도 잘 쓴 대본에 질투를 느낀 시드니 브뤼는 그의 대본 '데스트랩'을 차지하기 위해 클리포드를 자신의 작업실로 초대한다.

일시 4월 7일(화)~6월 21일(일)
화~금 오후 8시 | 토 오후 3시·7시
일·공휴일 오후 2시·6시(월 공연 없음)
4월 15일(수)·4월 30일(목)
5월 5일(화) 오후 2시, 6시 공연
장소 대학로 티오엠(TOM) 1관
관람료 R석 6만 원, S석 4만 원, 데스트랩석 1만 5천 원
문의 1666-8662



연극 <언체인>

연극 <언체인>이 세 번째 재공연을 맞아 '젠더 블라인드' 캐스팅으로 돌아왔다. <언체인>을 남남, 남녀, 여여의 캐스팅 조합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 잃어버린 딸 줄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마크'가 딸의 실종에 대해 알고 있는 '싱어'의 흐릿한 기억을 쫓아가며 조각난 기억들을 맞춰간다. 초연을 연출한 신유청이 다시 한번 연출을 맡았다.

일시 4월 7일(화)~6월 21일(일)
월·목·금 오후 8시 | 수 오후 4시·8시
토 오후 3시·7시 | 일·공휴일 오후 2시·6시
4월 8일(수) 오후 8시, 5월 5일(화) 오후 2시·6시
5월 4일(월) 공연 없음(화 공연 없음)
장소 콘텐츠그라운드
관람료 전석 5만 원
문의 02-747-2232



전시 <경계의 예술, 타투>

<경계의 예술, 타투>는 타투 아티스트가 아티스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온 TATTIST의 전시다. 오늘날의 타투이스트를 예술가로서 조명하고, 관객들과 소통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 스튜디오형, 체험형, 전시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 구성했다.

일시 ~4월 8일(수) 오후 2시~8시(일·월 휴관)
장소 인사1길 컬처스페이스 3층
관람료 성인 1만 2천 원, 청소년·대학생 9천 원, 어린이 6천 원
문의 02-399-1766



연극 <리어외전>

고선웅 연출의 <리어외전>이 지난 2012년 공연 이후 8년 만에 돌아왔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리어왕>을 원작으로 하여, 고선웅 연출 특유의 언어유희로 과감하게 비틀고 재구성했다. 비극과 희극, 현대와 고전을 넘나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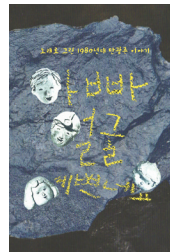
일시 4월 11일(토)~19일(일)
화·목·금 오후 8시 | 수·토 오후 3시·7시 30분
일 오후 3시
장소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원
문의 02-918-1982



창극 <패왕별희>(온라인)

초연 반년 만에 다시 공연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국립창극단 <패왕별희>가 2019년 11월 예술의전당 공연 실황 영상으로 전막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시각 중심' 경극과 '청각 중심' 창극이 만난 웅장한 서사극 창극 <패왕별희>는 동명 경극을 원작으로 춘추전국시대 초한전쟁에서 패하고 자결하는 영웅 항우와 그의 연인 우희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일시 ~4월 8일(수)
장소 국립극장 홈페이지
www.ntok.go.kr
문의 02-2280-4114



연극 <아빠 얼굴 예쁘네요>

<아빠 얼굴 예쁘네요>는 연출가 김민기가 젊은 시절 탄광촌에서 직접 보고 겪은 경험과, 실제 탄광촌 아이들의 일기와 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김민기 특유의 서정적인 음악이 정재일의 편곡을 거쳐 관객을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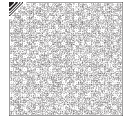
일시 4월 11일(토)~26일(일)
목 오후 4시 | 금 오후 8시 | 토 오후 1시, 4시
일 오전 11시, 오후 3시(월·수 공연 없음)
장소 학전블루소극장
관람료 프리뷰 할인 전석 1만 8천 원
(4월 11일~12일 프리뷰 공연에 포함), 어린이 2만 원,
함께 보는 성인 2만 2천 원, 성인 2만 5천 원,
학전 유료회원 1만 3천 원
문의 02-763-8233



토크 콘서트 <사랑방 중계>(온라인)

국립국악원이 국악계 인물들의 음악 이야기와 연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랑방 중계'를 준비했다. 젊은 국악인들의 실시간 토크 콘서트로 이루어지는 이번 콘서트는 매주 토요일 국립국악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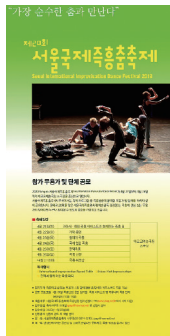
일시 ~4월 25일(토) 오후 3시
장소 국립국악원 및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
youtube.com/user/gugak1951
youtube.com/user/gugakfm
문의 02-580-3300



국립극단 70주년 기념 레퍼토리 <만선>

1964년 당시 희곡 공모 당선작으로 선정 및 초연됐고, 제1회 한국연극영화예술상(현 백상예술대상)을 수상하며 영화로도 제작돼 큰 사랑을 받았던 작품 <만선>이 국립극단 창단 70주년을 맞이해 관객을 다시 만난다. 바다를 떠전 삼아 살아가는 이들의 처절한 기록이자 삶의 풍경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일시 4월 16일(목)~5월 2일(토)
평일 오후 8시
주말 및 공휴일 오후 3시(월 공연 없음)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입장료 R석 5만 원, S석 3만 5천 원, A석 2만 원
문의 1644-2003



제20회 서울국제즉흥춤축제

'가장 순수한 춤과 만나다'는 슬로건으로 2001년부터 매년 봄 열리는 '서울국제즉흥춤축제'가 올해도 개최된다. 21일 즉흥 아티스트 네트워킹 'enjoy improvisation jam'을 시작으로, 22일 오프닝 즉흥 공연, 25일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야외 즉흥 공연 등이 펼쳐진다.

일시 4월 21일(화)~26일(일)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외
관람료 성인 2만 5천 원(학생 40% 할인)
문의 02-3688-0007, 02-3674-2210



전시 <뜻밖의 발견, 세렌디피티>

사비나미술관 신년특별기획전 <뜻밖의 발견, 세렌디피티>는 예술가 21명의 창작에 영감을 준 최초의 이미지를 발견한 생생한 순간과, 그 특별한 발견을 실행으로 옮겨 창의적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통합 과정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춘 전시다. 회화·조각·영상·드로잉·설치·사진 총 78점의 작품이 미학과 예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일시 ~4월 25일(토)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 휴관)
장소 사비나미술관 2~3층 기획전시실
관람료 성인 8천 원, 중고등학생(만 12세~만 18세) 6천 원, 유아 및 초등생(36개월 이상~만 12세) 4천 원
문의 02-736-4371, 4410



전시 <추니박, 침묵의 숲>

추니박(박병춘)은 2000년부터 산수풍경시리즈를 시작하고 그동안 독특한 작품을 발표해 화단의 주목을 받았다. 자연 속에서 눈에 보이는 풍경을 수묵화로 그려내는 추니박의 작품 41점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개인전은 '검은 풍경' 연작과 '치유의 숲' 연작을 포함한다.

일시 ~4월 25일(토)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 휴관)
장소 사비나미술관 기획전시실
관람료 성인 8천 원, 중고등학생(만 12세~만 18세) 6천 원, 유아 및 초등생(36개월 이상~만 12세) 4천 원
문의 02-736-4371, 4410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실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은 자연과 노래를 좋아하는 겐슈 수녀마리아가 엄격한 아버지 밑에 자라던 본 트랩가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며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우리에게 익숙한 '에델바이스' '도레미송' 등을 들을 수 있다.

일시 4월 28일(화)~5월 17일(일)
화·수·목 오후 7시 30분 | 금·토·공휴일 오후 3시~7시 30분
일 오후 3시(월 공연 없음)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관람료 VIP석 11만 원, R석 9만 원, S석 7만 원, A석 5만 원, B석 3만 원
문의 02-399-1000



웹판소리 <달문: 한없이 좋은 사람>(온라인)

웹판소리 <달문: 한없이 좋은 사람>은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방식의 융복합 문화콘텐츠다. 김탁환의 <이토록 고고한 연예>를 원작으로, 소리꾼 최용석(국악), 그림작가 김효찬(시각예술) 등 서로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이 협업했다. 광대이자 재담꾼이었던 '달문'이 청계천 수표교를 배경으로 춤추고 노래하는 생애를 전통적인 색채와 소리, 현대적 영상기법으로 표현했다.

일시 상시
장소 서울문화재단 유튜브
youtube.com/user/sfacmovie
문의 02-3290-7000

하나은행과 함께하는

제40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공연장별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아쟁
장구, 판소리, 민중-가야금합창
창간 및 고전, 작곡

공연장별

해인 사적일 거문고 18세 이상만 지

공연장별

2020. 4. 8.(화) 9:00 ~ 4. 19.(토) 18:00

공연장

해인사(전) 2020. 7. 7.(화) ~ 9.(목)

해인사(전) 2020. 7. 21.(화) ~ 23.(목)

해인사(전) 2020. 8. 5.(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로1가길 20 (남산동1) 해인사

주최-후원  한국문화재단 "한글문화연대" 후원

주최  하나은행

제15회

온나라 전통춤경연대회

공연장

신정동, 해인사

공연장

신정동
2020. 4. 3.(수)~현재
전 18세 이상만 지

공연장

신정동
2020. 4. 3.(수)~현재
전 18세 이상만 지

공연장

2020. 4. 27.(화) 9:00 ~ 5. 8.(토) 18:00

공연장

해인사(전) 2020. 4. 3.(수)

해인사(전) 2020. 4. 9.(목)

해인사(전) 2020. 4. 14.(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로1가길 20 (남산동1) 해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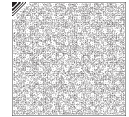
주최-후원  한국문화재단

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신청요령 및 접수: 국립국악원 누리집 온라인 접수 www.gugak.go.kr | 문의: 국악 02-5880-3054, 전통춤 02-5880-3399

국립국악원 공용전자 예매대회 4월 중 개최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참가 신청과 관람 등은 취소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agazine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3월호 독자 의견
[문화+서울]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감되는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을 받아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서울연극센터에서 만났습니다.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평소 좋아하던 극작가 배삼식 님의 인터뷰 코너가 특히 좋았습니다.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셨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앞으로도 많은 서울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어렵지 않게 즐기는 데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을 다루는 지면이 더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자는 [문화+서울] 웹진(magazine.sfac.or.kr)으로 발송하며 종이 장지는 주로 배포처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편집 후기

코로나 때문에 뒤숭숭한 마음을 자가격리 중에...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장

지금은 긴급상황

전주호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동교동 열정왕이 되테야!

홍지형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평범한 일상이 그리운 봄입니다.

김태희 객원 편집위원

독자 엽서

이은정 님(서울시 성북구)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서울연극센터에서 만났습니다.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평소 좋아하던 극작가 배삼식 님의 인터뷰 코너가 특히 좋았습니다.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셨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앞으로도 많은 서울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어렵지 않게 즐기는 데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을 다루는 지면이 더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바로잡습니다

2020년 3월호 37쪽(이슈 & 토픽 | 쟁점)에 실린 3번 사진은 2019년 4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실험무대에서 공연된 연극 <은하계 제국에서 랑데부>(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제작)의 일 부 장면으로, 기사 주제인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계 비상'과는 관련 없는 사진임을 밝힙니다.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금천예술공장, 남산예술센터, 대학로 연습실,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백성희장민호극장, 백암아트홀,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 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예술가의 집,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종량아트갤러리, 하자센터, 한국공연예술센터, 한전아트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질병관리본부
KCDC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